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제1663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가뭄에 AI까지 확산 고삐 풀린 식탁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2%대
달걀 67.9%·닭고기 19.1% 껑충
신선식품지수도 5.6% 뛰어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 더 압박할 듯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조류독감)까지 재발해 농축산물 가격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신선농산물과 계란 등의 수급 불안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 2%대에 진입한 뒤 5개월 연속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과 AI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2%가 뛰어 전체 소비자물가를 0.48%포인트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8.5%) 이후 가장 컸다. 이 중 축산물 물가는 달걀(67.9%)과 닭고기(19.1%), 돼지고기(12.2%) 등의 상승 영향으로 2014년 6월(12.6%) 이후 최대 상승폭인 11.6%나 뛰었다. 또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 과일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도 5.6%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가뭄이 장기화하고, AI 확산으로 물가상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봄철 강수량이 162㎜로 평년 대비 54.2%에 불과한 상황에서 장마 기간에 들어서는 6~7월에도 평년을 크게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I는 이달 2일 제주에서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일주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AI 감염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AI에 따른 닭고기 가격은 조만간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란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AI 여파로 올해 말까지는 계란 가격이 평년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관련 부처·기관 등과 회의를 열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5월 넷째 주부터는 민생경제정책관 주재로 3주 연속 관련 부처·기관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물 관련 동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아, 옛날이여"…명동 화장품 매장의 눈물

사드 직격탄 장기화로 폐점 속출
'올마스크…' 이달중 1곳 문닫아
'로얄스킨'은 3곳 중 1곳만 남아
매장 직원수 40% 이상 줄인 곳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성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지 만 3개월이 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당국의 보복 직격탄을 맞은 명동의 화장품 매장 중엔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9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최대 마스크팩 편집숍인 '올마스크스토리'는 운영 중인 6곳 매장 가운데 1곳을 이달 중 폐점한다. 또 '동물 마스크팩'으로 인기가 높은 로얄스킨도 지난해 3곳이던 명동 매장이 그해 연말 1곳이 폐점한 이후 사드 보복으로 1곳이 또다시 문을 닫으면서 1개의 매장만 남았다.

명동 화장품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몰리면서 한때 명동 내에만 80여 곳이 성업할 정도로 성장세를 구가했다. 그런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올 들어 사드 보복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품절 대란'을 빚을 정도로 유커의 대표적 '싹쓸이' 쇼핑 품목이던 마스크팩은 단가가 그리 비싸지 않은 대신 대량 판매로 유지해왔으나 유커 방문이 뚝 끊기자 초고가인 명동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는 매장들이 잇따라 철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명동 월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급감한 상태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면세점, 헬스앤뷰티스토어 등 다른 유통 채널로 판로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로 유커와 싼커(개별 관광객)를 호객하는 직원들이 즐비하던 명동 화장품 로드숍 거리 풍경도 확연히 달라졌다. 한 명동 화장품 매장은 점포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매장 직원 수를 사드 이슈 이전에 비해 40% 이상 줄였다고 귀띔했다. 매장 관계자는 "(사드 배치 여파가) 초기에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라고 생각해 직원들에게 무급 혹은 유급 휴가를 줘도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상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일기획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인 펑타이가 지난달 유커의 관심 장소 검색 데이터 66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 1번지로 꼽히던 명동은 지난해 대비 10계단이나 하락한 15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英 총선 출구조사
보수당 過半 실패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한 선거구에서 8일(현지시간) 총선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더욱 큰 주도권을 얻고자 조기총선을 감행했다. 그러나 총선 출구조사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메이 총리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관련기사 12면

글래스고/AP뉴시스



'J노믹스' 코드 맞추기 분주한 재계

삼성 등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 착수
일자리 확대 등 심도있게 논의할 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몸을 바짝 낮춘 재계가 하반기 경영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키워드는 일자리 확대와 동반성장 등을 중심으로 한 'J노믹스 코드 맞추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이달부터 하반기 경영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시기에 열리는 경영전략회의에선 보통 연초 사업 목표를 점검하고 향후 경영 목표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주요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하반기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선 그룹은 LG다. LG그룹은 7일 '그룹 전략보고회'를 시작했다. 그룹 전략보고회는 총수가 LG전자,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과 경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 상반기 전략보고회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대신해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처음으로 주재한다.

삼성전자는 27~28일 주요 임원과 해외법인장 등 400여 명이 모여 IT·모바일(IM), 소비자 가전(CE),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SK그룹도 이달 중 '2017 SK그룹 확대경영회의'를 열 계획이다.

재계는 대기업들이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점검뿐만 아니라 새 정부 코드를 맞추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 대한상의와 첫 대면하는 등 대기업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물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코미 '9·11급 핵폭탄 증언'에도 무덤덤한 월街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속 다우·S&P지수도 소폭 상승
"트럼프 親성장 어젠다 타격 없을 것"…英 총선결과에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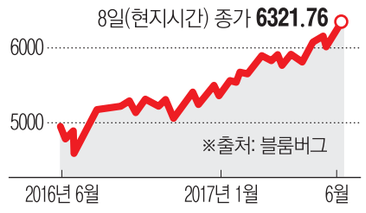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핵폭탄급 증언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무덤덤했다. 그가 의회 증언대에 선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0.04%, S&P500지수는 0.03% 각각 올랐으며 나스닥은 0.39% 상승했다. '세기의 증언' '워싱턴의 슈퍼볼'로 불리며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코미 전 국장의 폭탄 증언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가 지난 2월 회동 당시 러시아 게이트의 몸통으로 간주되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으며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2면

월가는 이날 증언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이 전날 공개한 서면 증언서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인프라 투자와 감세, 규제 완화 등 트럼프의 친성장 어젠다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의 대체 법안인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 2.0)'을 찬성 233, 반대 186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트 호건 분더리히증권 수석 투자전략가는 "어젠다를 중단시킬 만한 결정적 순간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며 "투자자들이 시장 붕괴를 덜 우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나스닥지수 추이



시장은 트럼프 이슈보다 이날 뉴욕 장 마감 이후 나올 영국 총선 결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 집권 보수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최대 1.9% 급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 아시아 금융시장을 필두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 증시 약세를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너 몰린 박삼구 반전카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늘 이사회 개최後 '상표권 허용 여부' 산은에 회신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9일 오후 KDB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다. 금호산업 이사회가 오전에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박 회장이 산업은행에 의견을 전달하는 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9일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산업 이사회가 상표권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그룹에서 산업은행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답변 기한을 연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이 전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전일) 그룹으로부터 금호타이어 관련 이사회 소집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룹 법무팀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회장이 마음을 굳히면 금호산업 이사회가 사후 추인하는 식으로 결정을 따라가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선(先)이사회 개최'로 변경됐다.

박 회장이 9일 오전 결정을 바꾼 것은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경영권 회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이 답변 연기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상 매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그룹 임원회의에서도 산업은행에 오늘 안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작업에 (박삼구 회장이)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했으면서도 금호타이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이슈 & 인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5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19.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인 2007년 19.8%에 근접했다. 국가 부채 증가율도 20년간 10.3%로 OECD 국가 중 6위로 매우 높다. 성장률 모형을 만든 거시재정 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무리한 증세는 조세 저항 등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보조금 주듯이 퍼주는 조세감면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증세 정책이 안착할 수 있다"고 했다.


주말에 어디 갈래 ▶17
아시아의 작은 유럽 마카오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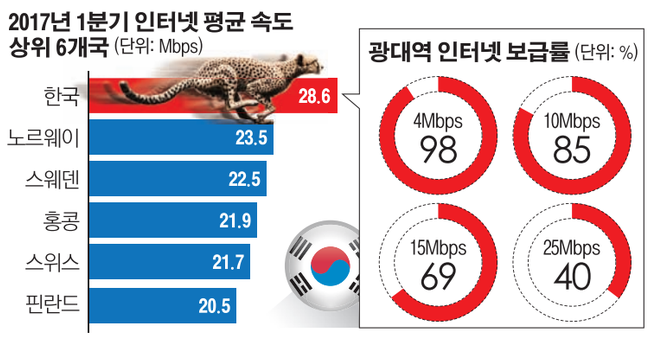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최종식 대표 ▶9


제임스 필립슨 ▶13

데이터 뉴스 Data News



한국 인터넷 속도 압도적 '세계 1위'… 보급률도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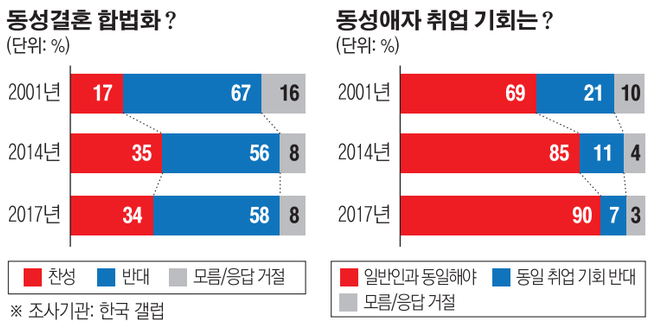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터넷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률 역시 2위와 압도적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인 아카마이코리아는 '2017년 1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가 28.6Mbps(메가비트/초)로 13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 평균 속도가 25.0Mbps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노르웨이가 23.5Mbps로 2위를 차지했고, 3위 스웨덴(22.5Mbps), 4위 홍콩(21.9Mbps), 5위 스위스(21.7Mbps) 순이었다.

1분기 전 세계 인터넷 평균 속도는 전년 동기보다 15% 빨라진 7.2Mbps였다.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광대역 인터넷(4Mbps·10Mbps·15Mbps·25Mbps) 보급률도 1위였다. 한국의 4Mbps 인터넷 보급률은 98%에 달했고, 10Mbps는 85%, 15Mbps 69%, 25Mbps 보급률은 40%로 나타났다. 김준형 기자 junior@



"동성결혼 합법화는 '아직'… 취업기회는 동등하게"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률이 10여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갤럽이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 결혼과 동성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에 대해선 34%가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올해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률은 2001년 조사 결과(찬성 17%)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아졌지만, 2014년 12월(찬성 35%)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률이 66%에 달했다. 그러나 30·40대, 5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각각 50%, 70%를 넘어 세대 간 인식차가 컸다.

동성애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90%는 동성애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고, 동성 결혼 법적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동성애자와 일반인 취업 기회가 동일해야 한다'는 데 86%가 동의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새 정부에 찍힐라… SK證 '공개매각' 전환

증권업 접는 SK그룹

작년부터 수의계약 진행했지만
'파킹딜 논란' 우려되자 급선회
文 정부 재벌개혁 정책도 부담
공개입찰 통해 투명성 확보키로

인수후보로 금융사·PEF 꼽혀
8~9월 매각절차 마무리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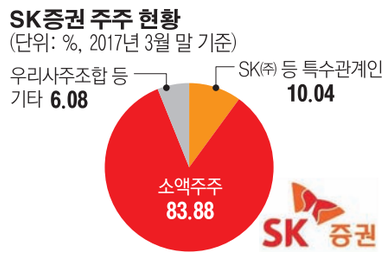
SK(주)가 SK증권을 공개 매각하기로 한 것은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 측은 지난해부터 별도 협상을 통해 SK증권 지분 10.04%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와의 협상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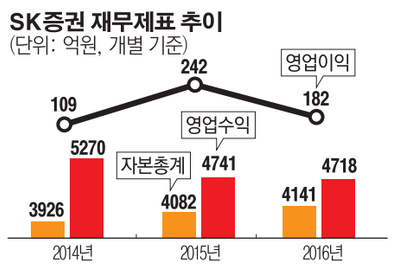
그러나 SK가 수의계약을 통해 SK증권을 매각하면 파킹딜(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분을 되사는 계약)이 아니냐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SK는 8일 SK증권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겨냥하는 것도 공개 매각으로 전환한 배경 중 하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증권의 상호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각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김신 SK증권 사장의 경영자 인수(MBO), SK(주)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인 SK케미칼로의 매각 등이 검토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SK케미칼은 일반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모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SK가 SK증권을 매각하게 되면 금융부문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SK그룹은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SK(주)→주요 계열사'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한 금융회사인 SK증권은 SK(주)의 자회사였다. 이 회사는 1992년에 선경그룹(현 SK그룹)에 편입됐다. 25년 만에 계열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SK증권의 새 주인이 관련 사업부문을 보유한 전략적투자자(SI)일 수 있기 때문에 'SK' 상호는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SK증권의 매각은 흥행이 점쳐진다.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SK증권 지분 10.04%의 매각 가격은 5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통상 금융·증권사의 매각 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ER)로 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SK증권 PBR를 1로 봤을 때 지분 10.04%의 가치는 415억 원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 것을 고려해도 500억~600억 원 수준을 웃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새 투자자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30%대로 높일 경우 매각가는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증권의 인수 후보로는 복수의 금융사 및 PEF 운용사가 꼽힌다. 그동안 SK 측이 시장 수요를 파악한 만큼 이미 유력 인수 후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PEF 중에는 SG PE, 스톤브릿지캐피탈을 비롯해 국내외 복수 운용사들이 SK증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DGB금융, JB금융도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지방 금융지주사의 경우 공개적으로 증권사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SK증권 매각은 올해 8~9월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SK(주)는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하면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했다. SK(주)는 8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설경진·최재혁·정다운 기자 skj78@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 공개

5% 단순보유 '경영권 참여' 아니다

지분변동때 공시보고 부담 완화
기관투자자의 가입 확산 독려
미공개 정보 매매 이용은 안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5%보고'에서 '경영권 참여'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또 기관투자자가 주주 활동 과정 중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때는 이를 매매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려졌다.

금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주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약한 바 있다. 이번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5% 보고'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경영권 참여의 목적이 아닌 한 지분 변동에 관한 약식보고를 인정하고, 공시 시점을 지분 변동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게 허용했다.

'5% 보고'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주주가 경영권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5% 보고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은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활동이라고 해석했다. 기관투자자가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거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로 보기 힘들다는 것. 당초 논란에서 상당히 완화된 시각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을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 보유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관투자자 간 협의가 있거나, 공동으로 회사 경영진을 면담한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총에서 투표했는데, 결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온 경우에는 주식 공동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 기관을 이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7의 안내지침에서 제시한 형태의 포럼에 참석한 경우에도 공동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 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5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금융위는 해설집 배포 등을 참고해 하반기 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법령 해석 내용

핵심 쟁점 사항	법령 해석 내용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	● 정보 비대칭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함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 1 일정기간 매매 등 중단하거나, 2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공정공시)한 뒤 매매 · 거래하는 등의 방법 선택 가능
●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인 기관투자자가 '5% 보고'시, 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님



訪美 동행때 '선물 보따리' 풀면 '어색한 허니文'도 풀릴까

새정부와 '소통의 문' 열었지만… 움츠러든 재계

국정기획委 회동서 박용만 회장 '큰그림 보면 너무 이르다' 발언 나오자
商議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뜻" 즉각 해명
'방미 경제사절단 구성, 靑과 관계 설정의 기회' 낮은 자세 보이며 탐색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첫번째)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재계가 문재인 정부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재계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에 바로 해명하는 등 계속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다"면서도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계의 의견 전달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고 사회 현안 등 국정 전반의 큰 원칙도 단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재계와의 소통을 단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차례차례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쭉 스케줄을 짜놨고 당연히 경제단체도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었다"며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노동계 쪽에 먼저 가서 (국정기획위가) 편향적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정부는 열린 소통의 뜻을 전했지만 대한상의는 한껏 움츠린 모습이다. 대한상의는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해당 발언 진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도, 구체적인 정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단체가 이런 저런 의견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일이 되게 할 수 있나를 공부하고 대안을 연구할 때라는 것으로 정책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위축된 재계가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내달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꾸미는 민간 경제사절단을 통해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부로부터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민간 경제사절단을 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사절단과 관련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기준을 정한 뒤 참여 기업을 정할 것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절단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 간 사드, 한미 FTA 재협상 등 민감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사절단이 꺼내는 카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해 환영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현지 생산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미까지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영향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경제인 사절단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52명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카드를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2G·3G만 '기본료 폐지' 가닥 LTE 사용자들 '逆차별' 논란

〈이통 가입자의 85%〉

업계 "기본료 완전폐지땐 7.9조 손실 작년 영업이익의 2배 넘는 수준" 난색
정부도 '저소득층 중심 인하' 긍정적 알뜰폰업체 "경쟁력 저하"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공약 추진 일지

2017년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발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골자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5월 25일	미래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첫 번째 업무보고.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해 미래부에 추가 보고 요구
6월 1일	2차 업무보고,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관련 방안 제출
6월 6일	국정기획위,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진정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업무보고 안받겠다고 선언 이른바 '보이콧' 선언
6월 7일	국정기획위, 미래부에 9일까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요구(보이콧 철회)
6월 8일	9일로 예정된 미래부 통신비 인하 보고 10일로 연기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통신사들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 기준 7조9000억 원에 달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이는 지난해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약 3조6000억 원)의 2배를 웃돈다는 게 이통 3사의 공통된 입장이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나아가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정부와 업계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강경했던 국정자문위도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라며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G와 3G 서비스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LTE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약 5500만 명(알뜰폰 제외) 가운데 2G와 3G 가입자는 약 800만 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이다. 결국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LTE 서비스 이용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통신료 인하 정책에서 소외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의 공약과 기업의 현실성을 감안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말을 아꼈다.

2G와 3G만 기본료 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는데 2G와 3G 기본료만 폐지될 경우 기존 이통3사의 요금이 비슷해져 40여 알뜰폰 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하면서 "알뜰폰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김범근 기자 junior@



‘청문회 정국’ 장기화 조짐… 추경도 비상

한국당, 김동연 제외 3명 ‘부적격’
국민의당은 ‘조건부 협조’ 방침
인사청문회 내달까지 이어질 듯
22일 목표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
文대통령, 상임위원장단 회동 추진


김이수(오른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항쟁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 기사 배모 씨의 두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문회 정국이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는 정부 최고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부적격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이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는 조건부로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험로가 예상된다. 남은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검증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 비상이 걸린 상태여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혁입법 처리는 난망이다. 한국당이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 시 협치는 끝”이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여당 견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민생 추경”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이달 2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도 “최소한의 조직 변경”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열심히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설득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원내 미팅을 통해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여의도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아울러 다음 주께 여야 상임위원장단과의 회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해 여야 협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청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차례대로 순서를 밟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달 추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당·청은 정권 초임을 고려해 야당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가 한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청 관계에 정통한 민주당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며 “이런 정국에서 이번 달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저출산 해소’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선정

국정기획좇, 일자리·4차 산업 이어
‘인구 절벽 시대’ 위기 극복책 모색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출산 해소’를 국정 3대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 대비와 함께 국정 3대 우선과제로 꼽아 인구 절벽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기획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 방안’을 주제로 7개 정부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 올해는 이보다 낮은 35만~36만 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 인구가 확 줄어들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접근하고 있다”며 “(저출산 공약 관련) 후퇴로 보이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3대 우선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혁명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며 “결혼, 연애를 포기하고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구해 절망하는 사람의 신음이 헬조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먼저라는 젊은이가 늘어나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 문제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가 국정 운영의 우선과제로 떠오르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정기획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힘을 실어 관계 부처와 모든 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장관에게 위원을 맡기고 민간에서 위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청년·신혼부부의 공공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안정 대책으로 결혼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공공보육 40% 달성,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출산·양육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AI대책·사드 배치 논란 등 현안 총괄

총리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새 정부 ‘인사 암초’에 정국 급랭
靑 인선 미루고 野3당 설득 올인
이낙연 총리 중심 비상체제 가동

취임 10여 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인사 암초’에 정국이 급랭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안보팀이 여전히 완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은 대부분 국무총리실의 몫이 됐다. 이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AI 확산을 막고자 제주 애월읍의 AI 방역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AI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받은 이 총리는 두 차례의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AI 완전 종식을 위한 고삐를 더욱 바싹 죌 계획이다. 실무를 총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이 임명조차 되지 않은 만큼 AI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리실 중심의 비상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고 누락 진상조사의 공도 이제 총리실로 넘어갔다. 정부는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했고, 총대는 국무총리실이 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첫 사드 범정부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에 관한 국방·외교·환경부 등 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의견을 공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회의에서는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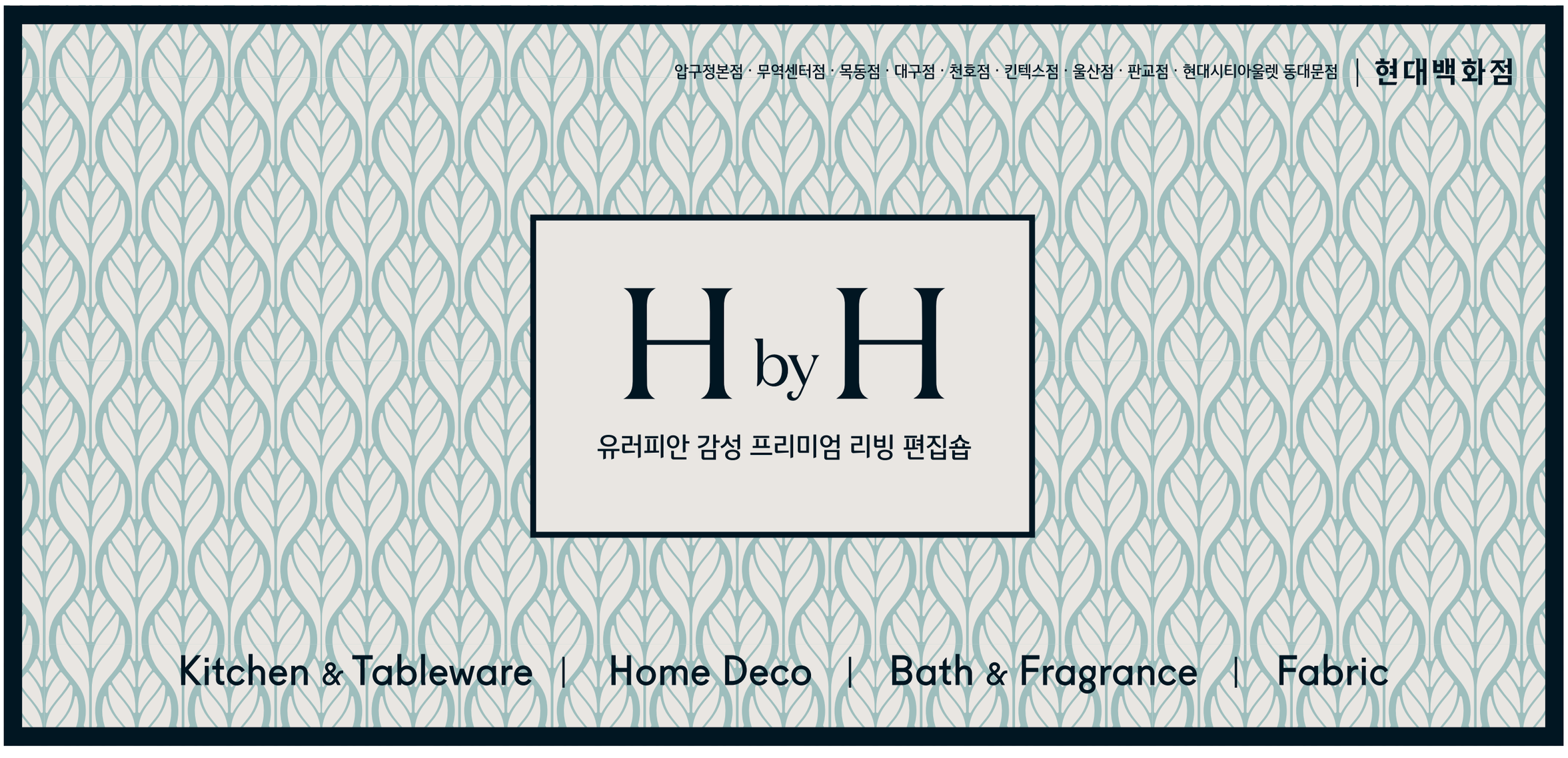
청와대는 새 정부 조각 지연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후속 인선 발표를 잠시 미루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 설득 작업에 올인할 태세다. 여권 내부에서도 인선의 걸림돌이 된 ‘5대 인사원칙’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원칙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가뭄, 일자리 추경, 비정규직 문제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경제·민생 현안은 모두 총리실이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맡기엔 부담스럽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한 부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는 총리실로 많이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에게 주어진 초기 과제인 AI와 사드 문제 등의 해결에 합격점을 받는다면 국정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총리제’ 실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리도 스스로 ‘책임총리’를 자처하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이해찬 체제를 거울삼아 문재인-이낙연이라는 새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역할 분담을 참고해 대통령·총리 주례 회동을 곧 시작하고 확신을 갖는 인사가 있다면 대통령께 제안을 드리고 실질적인 제청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면세자 축소"…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

이달 20일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시작으로 세목별 공청회 개최
주세·상속세·증여세 이어 내달 에너지세 논의…7월 말까지 정부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세를 시작으로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성장을 위한 공정·형평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증세,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 개선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우선 20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7월 말께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22일에는 주(酒)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현행법상 주세율은 종량제가 아닌 종가세다.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비율이 높아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출고가격에는 단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유 가격 인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경유 가격을 올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은 관련업계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외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 등도 주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 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곽도흔 기자 sogood@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일정

6월 20일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22일	· **주세** : 맥주 주세율 인하
29일	· **상속세 · 증여세** : 상속 · 증여 신고세액 축소,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7월 중	· **에너지세** : 경유 가격 인상 · **법인세 · 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7월 말	· 세제 개편안 발표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



2017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장년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50개사가 함께하는 현장박람회와 200개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脫원전 정책 '학계 vs 시민단체' 여론전

원자력학계 "누적발전량 3조4000억kWh…전기료 낮춰 경제발전에 기여"
80여 시민단체 "원전사고 공포 벗어나려면 脫核이 정답" 공동성명서 발표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원자력학계와 시민단체가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첫 영구정지에 들어갈 고리 1호기의 '퇴역'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자력학계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8일 서울대 시진핑홀에서 열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에서 학계는 탈원자력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5~2015년 기간 최대전력과 1인당 소비는 연평균 5% 성장했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단가가 낮아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원전 누적발전량은 3조4000억kWh(킬로와트시)로 이는 KTX로 서울과 부산을 약 1억 1500만 번 왕복할 수 있는 물량과 맞먹는다. 현재 원전은 국내 전기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학계 교수들은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된 이후 원전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균 53원인 원전 전기 덕분에 당시 급격히 증가하던 전기 수요를 맞추고, 오일쇼크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형 산업인 만큼 현 정부가 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시 다수의 중소기업 인력 유지 및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자력학계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평균 전기요금이 1kW에 108원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원전 포기 정책을 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핵 단체들은 원전 사고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방법은 원전 제로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 탈핵 공약이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36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원자력공학자들과 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 대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이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文대통령 "AI 근원적 해결책 마련하라"

전국에 걸쳐 농가 11곳서 고병원성 확진
유례없는 여름철 AI…"의례적 대책" 질책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정부의 의례적인 대책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은 근원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임실(1개 농장)·군산(3개 농장)·익산(2개 농장) 등 전북 지역에서 총 6건의 AI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11개 농가가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됐다. 제주와 전북 군산·익산·경기 파주·부산 기장·경남 양산·울산 등 6개 시도, 8개 시군에 걸쳐 있다.

흔히 겨울철 가축전염병으로 인식하던 AI가 봄을 넘어 여름까지 창궐하면서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을 무기한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과 오리는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생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면서 위생상 문제점과 방역관리상 취약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AI 발병을 계기로 생닭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닭을 취급하는 영세업소의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7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와 지원 방안 등을 합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닭 유통금지 정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철저한 감독과 보관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AI 대책을 보고받고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하며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눈높이 낮춘 경제교육' 韓銀 금요강좌 700회

23년째 물가·통화·금융·경제 동향 주제 '인기'
조동철 금통위원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 특강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제1별관 8층 강당은 보조좌석에까지 앉은 350여 명의 사람들로 북적댄다. 한은 금요강좌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눈에 띈다. 물가 및 통화관리, 금융 경제 동향 및 전망 등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9일 열리는 금요강좌는 700회째다. 햇수로는 23년째다. 700회를 기념해 조동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황성 한은 경제교육실장은 "최근에는 강좌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정부와 연구원, 교수들에게도 호응이 좋다"고 전했다.

금요강좌를 수강한 서울 소재 대학생들에게는 경제교육봉사단 활동 기회도 주어진다. 한은 금요강좌는 7월부터 서울 태평로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한국은행 금요강좌가 9일로 700회를 맞는다.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에 대해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 쉽게 풀어주면서 매회 350여 좌석이 꽉 차는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사진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0년 4월 '교과서 밖 살아있는 경제이야기' 강연 모습.

김남현 기자 kimnh21c@



"부당개입"…삼성물산 합병 정당성 흠집

문형표·홍완선 1심 '유죄'

"文,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洪, 불리한 안건, 찬성 이끌어"

윗선 지시여부 판단 안내리고
'삼성 뇌물죄' 재판부로 넘겨

소액주주 무효소송에도 영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복지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홍 전 본부장은 선고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께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이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주가치 훼손 등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연금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법령과 내부지침을 준수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기금 운용 원칙을 저버렸다"며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대해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이어 "배임행위로 인해 국민연금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고, 반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는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전 장관에게 합병 찬성 지침을 내렸다고 적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다퉜던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판단 가능하다"면서도 "다른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 중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에 핵심 부분 판단을 미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특검과 검찰이 '삼성 뇌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우위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등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끝내고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원에서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그밖에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국민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청구 취지를 바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외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았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물산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합병에 복지부가 개입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도 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시작
檢察 고위간부 줄줄이 좌천

대구고검장 등 4명 사의 표명
정윤회 문건 담당 3명도 人事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문책성 칼바람이 다시 시작됐다. '돈봉투 만찬' 감찰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51·20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고위 간부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비지휘 보직으로 배치된 이들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작업로 풀이된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초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 측근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3명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제대로 파헤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이날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 자리에 있던 양부남(56·22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고조치 권고의견을 받은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이외에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으로 근무지를 바꾼다. 이들은 전보된 곳에 오는 12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기습적으로 이뤄진 인사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고,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 접는다

음악 중심공간 '노들마을' 추진

서울시가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이었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노들섬에 대한 '문화시설 폐지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274억 원을 들여 매입해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 조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밝혔다.

이후 오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인 2010년에 '한강예술섬'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시설로 결정된 바 있다. 1500석 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한강예술섬'사업은 포함해 5만3000㎡규모의 콘서트홀과 다목적공연장, 미술관, 야외음악공연, 조각공원, 야외 전시장, 생태공원 등의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투자심사가 보류돼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노들섬 개발 사업 방향을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한 복합공간인 '노들마을' 조성으로 변경한 바 있다. '노들마을'에는 공연, 체험,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들마을'은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웅 기자 cogito@

타들어가는 저수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mm로 평년 292.7mm의 56%수준이다. 8일 경기 안성시 금광저수지의 갈라진 바닥에 갈길 잃은 작은 배 한 척이 멈춰 서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은석 前 외교부 대사는 무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오 대표의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고·공시의무 위반, 11억 원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반면 2심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 등을 들어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인정,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오 대표 등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오 대표와 공모해 CNK 허위 매장량 정보를 엄격하게 검토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56th ANNIVERSARY

남자의 부러운 혜택!

IBK나라사랑카드



통합할인한도 조건 없는 할인혜택

- 군마트(PX), GS25, CU 할인
- KTX, 고속버스, 대중교통 할인
- 전국 6대 놀이공원 현장할인
- 현실적인 전월이용실적 충족 시 제공

전월실적 관계없는 편리한 서비스

- Syrup 통합 멤버십
- 그린카드 적립·할인 서비스
- 모든은행 ATM 출금수수료 면제
- 후불교통카드 기능
- 현역병 상해보험 무료가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227호(2017.04.06), 발급대상: 입대예정자, 현역병사 등 / 발급구분: 체크 / 연회비: 면제

※ 이 안내장은 2017. 04. 0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축소 ·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2015. 12. 21) 이후 5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고지 해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하나 /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19). / ※ IBK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최저 16.5% ~ 최고 연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부대우전자 경영권 넘어가나

지분 45.8% 보유 재무적투자자들 '매각 연기' 요청 거절

中 가전사 오크마와 투자협상 중
F1, 기한 넘기자 공동매각 추진
"일정 미룰 필요없어" 실사 강행

경영권이 넘어가는 사태를 막으려는 동부대우전자의 움직임이 뜻대로 되기 힘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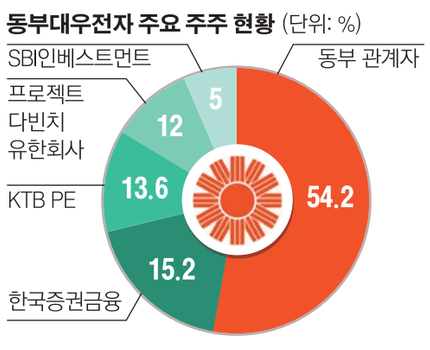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측은 유진자산운용, KTB PE, SBI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재무적투자자(FI) 들을 만나 매각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부대우전자가 새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 조항에 따라 FI들이 지분 100%를 전량 매각할 전망이다.

동부대우 측은 오크마와 투자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부대우전자의 요청을 FI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새 투자자 유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동부대우전자 측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 투자자 유치를 기다리던 FI들은 동부대우전자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잠정 기한을 넘기자 예정대로 공동매각을 추진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다.

동부대우전자 주요 주주 현황 (단위: %)



특히 FI들은 굳이 동부대우전자 측의 요청대로 공동매각 일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사에 시간이 필요하고, 공동매각 추진 중이라도 동부대우전자가 새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면 언제라도 매각 과정을 취소할 의향이 있어서다. 실사는 이르면 이달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동부대우전자의 협상이 잘 되면 좋다"면서도 "(공동매각 절차 진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던 것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들이 보유한 동부대우전자 지분은 45.8%다. 2013년 동부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할 당시 1350억 원(지분율 49%)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실시된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졌다.

인수 당시 동부그룹은 FI들에게 △2018년까지 기업공개(IPO) △순자산가치 1800억 원 유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드래그얼롱(동반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다.

동부대우전자의 순자산가치가 1800억 원 아래로 떨어지고, IPO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FI들은 동반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동부대우전자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본 총계는 약 1630억 원이다.

이에 동부대우전자는 경영권이 매각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 파트너스와 투자유치협약을 맺고 새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자베즈 파트너스가 조성한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중국 가전업체 오크마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동부대우가 매각되면 동부, 동부하이텍, 동부라이텍 등 동부그룹 상장사들은 1000억 원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 기준으로 동부하이텍은 동부대우전자 지분 17.0%, 동부 6.1%, 동부라이텍 1.7%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말 한마디로 금융거래…음성 AI 뱅킹

우리·하나·신한銀 서비스 개시
삼성전자 인터페이스 '빅스비' 이용
음성입력 15초 만에 계좌 이체
국민은행도 도입 여부 검토 중

지난 2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음성인식 AI(인공지능) 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인터페이스 '빅스비(Bixby)'를 이용해 음성 명령만으로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음성인식 AI 뱅킹 서비스를 동시에 내놨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바이오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미래형 뱅킹을 모색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음성기반 지능형 뱅킹 서비스인 '신한S뱅크 mini+'를 출시한 상태다. 신한은행이 삼성전자와의 3개월간 공동작업을 통해 완성한 '신한S뱅크 mini+'는 삼성전자의 음성기반 지능형 인터페이스(빅스비)와 바이오 인증 서비스(Samsung Pass)를 결합한 차세대 뱅킹 모델이다.

우리은행도 이달 2일부터 빅스비를 활용해 음성 명령으로 조회·이체·환전 등이 가능한 '원터치개인 삼성페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 빅스비를 실행해 고객이 "어머니께 3만 원 보내줘"라고 말하면 생체인증을 거쳐 이체거래 완료까지 음성입력 후 15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같은 날 하나은행 역시 음성을 인식해 음성명령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음성인식 텍스트뱅킹'을 시작했다. 여기에도 삼성전자의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인 '빅스비'가 적용됐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핀테크 부문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8월에 삼성전자의 홍채인증 기술을 채택한 '셀카뱅킹'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한준성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번에 출시한 '음성인식 텍스트뱅킹'은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향후 KEB하나은행이 추진할 인공지능 대화형 금융플랫폼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익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아직 음성인식 AI 뱅킹에 착수하지 않은 KB국민은행은 현재 관련 서비스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음성뱅킹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이어 손바닥 정맥 인증을 활용한 뱅킹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손바닥 정맥 센서를 활용한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업점 업무에까지 바이오 인증을 접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뱅킹 서비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개인별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NH농협은행, 가뭄피해 농가 봉사활동



NH농협은행 경영기획 부문 이강신 수석부행장과 직원들은 8일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농가를 찾아 마늘 수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농협은행은 가뭄피해 농가를 위해 저리의 농업정책자금 지원, 여신 특별 우대금리 적용, 이자납입과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은 물론 전행 차원의 농촌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 수석부행장(왼쪽)이 수확한 마늘을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소멸 신용카드 포인트가 주인 없는 돈?

소멸 포인트로 기금 구성 신용카드재단에
자영업자총연대, 연수원 건립비 100억 요구
재단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요청에 난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하 '신용카드재단')이 외부단체의 거액 자금 출연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9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달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4월에 출범한 신용카드재단 기금의 약 100억 원을 중소상공인 연수원 건립비로 출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자영업자들의 권익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참여단체 등 300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문제는 신용카드재단의 설립 취지, 재원 성격을 고려할 때 연수원 건립비 지원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재단은 신용카드사에서 기존에 조성했던 사회공헌기금 잔액 66억 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및 선불카드 미사용액 잔액 약 2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소멸 포인트 가운데 가맹점 부담분은 제외했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는 "가맹점에 방문한 카드 회원들이 적립한 가맹점 포인트는 여신협회나 카드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이 포인트를 자영업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수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포인트는 회원들이 쌓은 것이고, 가맹점 포인트는 해당하지 않는데 연수원 건립 지원 얘기가 나와 난감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연수원 건립 취지는 좋지만, 영업 존폐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재단은 현재 서민금융 지원, 영세가맹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60억 원, 40억 원을 지원해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지원 등 소액 대출과 영세 가맹점 미소금융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연 4%, 학자금은 연 2%로, 5년 이내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 해당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영세가맹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영세 가맹점주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3D 낸드 플래시' 호황 타고…

SK머티리얼즈, 글로벌 1위 도약 노린다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이달 가동
SK하이닉스도 하반기 생산 확대
특수가스 'WF6' 수요 대폭 늘어
日업체 제치고 점유율 1위 기대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이 이달 가동을 눈앞에 두면서 SK머티리얼즈도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육불화텅스텐(WF6) 공급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평택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WF6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SK머티리얼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셋업(Set-up)용 WF6 가스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WF6는 반도체 배선형성 공정에서 메탈 실리콘 증착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다.

삼성 평택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해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WF6의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가동 후 3D낸드 생산량(웨이퍼 기준)은 최대 월 20만 장 가까이 증가해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SK머티리얼즈의 또 다른 고객사인 SK하이닉스 역시 올 하반기부터 3D 낸드 생산을 늘리면서 이에 따른 WF6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SK머티리얼즈는 3D 낸드의 성장에 따라 WF6 역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작년 11월부터 455억 원을 투자해 연산 600톤급 WF6 생산라인 1기에 대한 증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이 9월 말 마무리되면 SK머티리얼즈의 WF6 생산능력은 900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SK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기준 생산능력 연간 600톤인 경쟁업체 일본의 '칸토 덴카'를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다. 또한 3D 낸드 시장의 확대에 따라 다른 공급처를 찾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3D낸드 생산량은 지난해 말 월 25만 장에서 올해 말에는 66만 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이후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에는 WF6부문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아자동차 '스팅어'

기아차 스팅어 '기분 좋은 출발'

출시 3주 만에 2700대 계약
3040 남성고객층 공략 성공
'브랜드 고급화' 전략 청신호

기아자동차의 첫 프리미엄 스포츠세단 '스팅어'가 출시 3주 만에 2700대 계약을 성사시키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스팅어를 필두로 한 기아차의 브랜드 고급화 전략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8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총누적 2700대 이상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만 140대 이상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아차는 기대했던 초반 계약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올해 판매 목표가 8000대 수준인데 초반 계약 속도를 보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월평균 1000대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스팅어의 인기 요인은 주요 타깃으로 삼은 30·40대 남성 고객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제 스팅어 계약 고객을 살펴보면 남성 고객 비중이 84%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0.6%, 40대가 34.5%, 50대가 15.8%를 차지했다.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스팅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주행력과 고급성이 통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스팅어 계약 고객들 대부분이 고성능 모델인 3.3 가솔린 트윈터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스팅어 계약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8%가 이 모델을 고른 것. 이어 2.0 가솔린 터보를 선택한 소비자는 42.7%, 2.2 디젤은 7.5%로 집계됐다.

트림 선택 비중도 고급 모델에 집중됐다. 절반에 가까운 고객(45.5%)이 3.3 모델의 최고급 트림인 GT를 선택했다. 2.0 모델의 경우 36.4%가 고급 버전인 플래티넘을 선택했으며 디젤 역시 플래티넘 트림을 고른 소비자(6.5%)로 엔트리 트림 계약자(1.0%)보다 많았다.

김창식 기아차 부사장(국내영업본부장)은 "고급차임에도 소비자들의 상품, 체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판매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허위·과장광고?… 인도서 몸살 앓는 삼성·LG전자

현지 단체 "삼성 스마트폰·LG 에어컨 광고 소비자 불만 접수"… 양사 "문제없다" 반박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 업체들이 인도 현지시장에서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품 라인업뿐 아니라 광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인도 광고표준위원회(ASCI)의 고객불만협의회(CCC)는 지난달 214건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한 결과 LG전자의 에어컨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ASCI는 LG전자가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에어컨 광고에서 △30% 빠른 냉각 △다른 에어컨 대비 66% 추가 에너지 절약 △모기 퇴치 등의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SCI는 LG전자에 "광고 문구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다른 에어컨이 LG전자의 에어컨 제품보다 열등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광고에 기재된 문구 내용은 모두 사실이 맞다"며 "인도의 에어컨 광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도의 ASCI는 1985년에 설립된 민간 조직이다. 정부기관이나 규제 기구는 아니지만, 지역이나 글로벌 광고 대행사들이 멤버로 속해 있는 광고 대행사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기구다. 소비자들이 광고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의를 하면 광고 회사와 연결해 해명을 요청하는 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도 갤럭시S7과 S7엣지의 방수 스마트폰 영상 광고가 과장 광고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제기를 ASCI로부터 전달받았다. 인도의 삼성 갤럭시 S7 영상광고에는 한 남성이 설거지를 하다가 핸드폰을 물이 담긴 싱크대에 빠트리고서 바로 꺼내 물기를 닦아 전화받는 모습이 나온다.

소비자들 중 일부는 해당 광고를 따라해 본 결과 핸드폰이 손상을 입었고, 해당 광고는 과장 광고라고 ASCI에 불만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SCI는 CCC와의 검토, 기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갤럭시 S7과 S7엣지가 방수 스마트폰이라는 주장은 테스트 인증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라고 사이트에 입장을 게재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쌍용자동차 'G4렉스턴'

쌍용차 "G4렉스턴 기대 크다"

최종식 대표 시승행사장 참석
"수익성 확보 큰 역할 해낼 것"
신형 가솔린 엔진 하반기 출시



최종식〈사진〉 쌍용차 대표가 G4렉스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시 초부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는 G4렉스턴이 향후 쌍용차의 수익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최종식 사장은 7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G4렉스턴 시승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G4렉스턴에 음성인식기능, 7인치 TFT LCD(초박막 액정 표시장치) 등 그동안 연구한 모든 첨단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티볼리의 경우 쌍용차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가격대가 낮다 보니 수익성은 떨어지는 편"이라며 "G4렉스턴의 경우 평균 단가가 4000만 원대로, 회사 수익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연간) 티볼리 10만 대, G4렉스턴 5만 대, 내년 출시될 럭셔리 픽업 5만 대 등 20만 대의 판매 규모를 갖춘다면, 현재 공장 생산능력 24만 대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흑자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사장은 디젤차 규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정책과 관련해 충실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디젤차와 관련해 현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디젤차에 대한 기존 규제가 충분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통해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사장은 "디젤에서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추세이긴 하지만 가솔린도 고려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디젤차는 기본적으로 매우 경제적이고, 화물차 등 개인 영세사업자가 많이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관련 추가 규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형 가솔린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사장은 "새로 개발 중인 가솔린 엔진이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솔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급휴직자, 해고자, 신규채용 등 꾸준히 인력을 충원해 오고 있다"며 "내년 픽업트럭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인원 충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韓 GDP 대비 벤처투자 美·中 절반에도 못미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과 중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벤처캐피탈 국내외 비교 및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0.13%으로, 벤처강국인 미국(0.3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의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난해 GDP 벤처 투자비중은 0.28%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4년 0.11%(1조6393억 원), 2015년 0.13%(2조858억 원) 등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아시아의 최대 벤처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중국과 유사한 0.2%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3조2000억 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는 금융기업의 투자 대신 CVC가 벤처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포스코대우, 中 저장성에 '한국 상품관' 개장



포스코대우가 중국 저장성(浙江省) 이우시(義烏市)의 세계 최대 소비재 도매시장인 국제상무성에서 '포스코대우 한국 상품관'을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본부장(왼쪽부터),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니찌앤쥔 이우시 부시장, 짜오웬거 소상품성그룹 동사장, 우샤오판 나이란 사장 등 한중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포스코대우 한국 상품관' 개장 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대우

한진, 공급망 관리 강화로 고객사와 '윈윈'

군포센터, NS홈쇼핑 전담 운영… 물류비 30% 절감 성과 기여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1여 년간의 홈쇼핑 물류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한진은 물류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통해 고객사인 NS홈쇼핑의 물류비 절감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해 5월부터 군포물류센터를 고객사인 NS홈쇼핑 전담 거점으로 운영하며 1년여간 NS 홈쇼핑의 물동량 31% 증가, 물류비 30% 절감 등의 성과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의 군포물류센터에서는 주요 업무인 입고, 유통가공,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 운영과 관련 홈쇼핑 및 협력사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홈쇼핑, 협력사, 택배 등 3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프로세스를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한진은 군포물류센터를 NS홈쇼핑 전담 물류거점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허브터미널 등 타 지역의 연계 거점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군포물류센터의 출고 마감시간을 연장하며 당일 출고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한진의 전담 인력이 NS홈쇼핑 물류센터 업무를 적극 지원하며 물류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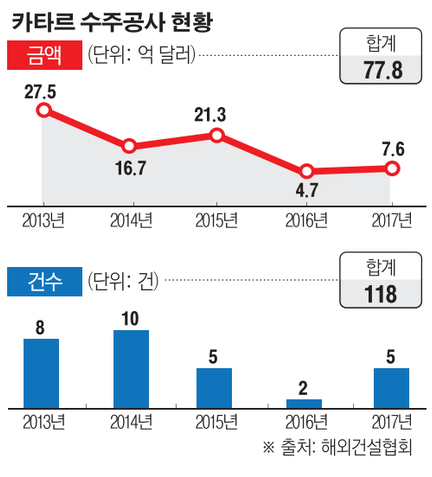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보다 빠른 배송을, 홈쇼핑 및 협력사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조의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상품의 재이동 시간도 감소하는 등 업무 효율이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창고운영, CS(Customer Satisfaction)관리, 창고 임차료, 양품화 작업(상품 재분류 작업), 상품 포장 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일 홈쇼핑 방송 상품의 경우 휴일 출고시스템 적용으로 배송 완료를 1~2일 단축하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월요일에 집중되던 택배 물량이 분산되어 현장의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다.

황윤주 기자 hyj@

'카타르 斷交'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국내 기업 17개사 110억달러 공사 진행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수주 빨간불
장기화땐 자재 수급 차질, 원가는 상승
회복세 보이던 중동 발주 감소세 우려



※ 출처: 해외건설협회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7개국과 단교가 되면서 건설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카타르가 건설업계의 주요 고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단교가 장기화할 경우 자재와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사우디를 비롯한 7개국은 카타르가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테러리스트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했다.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국가는 7일 현재 9개 나라로 늘었다.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흐르면서 수주물량 확보가 시급한 건설업계는 상황 파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인프라 공사 등의 물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주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카타르 지역 건설공사에 영향이 있는지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17개사가 총 26건, 110억 달러가량의 건설공사를 수행 중이다.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카타르에서 수주한 금액은 77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주국 규모로만 봐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시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장기간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건설 자재와 장비 이동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챙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로 중동 국가 간 건설자재 등의 육로 수송이 안 될 경우 카타르항을 이용한 해로를 활용하면 된다"며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타르에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수입 없이 앞으로 2~3주가량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 자재를 확보한 상황이라 당장 큰 위기가 닥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하릴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단교 선언 이후 건설사들의 자재를 실은 선박이 두바이항에서 카타르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해외건설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2010년 중동 국가들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물자수급의 차질로 해외건설 현장의 손실이 커진 바 있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올해 회복세를 보이는 중동·북아프리카 일대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카타르에서 현장을 운영 중인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중이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과 대응 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비수기 잊은 '분양시장'




상반기 막바지 6만4000여가구 쏟아져… 건설사, 늦춰왔던 물량 이달 대거 공급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등 메이저 단지 잇따라

상반기 막바지에 전국에서 총 6만 가구가 넘는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늦춰왔던 분양물량을 이달 중 전국 곳곳에서 대거 밀어낼 예정이다.

9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전국 69곳에서 총 6만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은 5만2662가구다.

물량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다. 5만여 가구의 일반물량 중 무려 3만2517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전체 분양물량의 61.7% 수준이다. 서울은 4986가구, 경기는 1만8779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은 2만145가구가 주인 찾기에 나선다. 충남이 3693가구로 가장 많고, 강원, 경북 등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메이저 브랜드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재건축을 통해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최고 지상 30층 높이로 7개 동, 총 859가구 규모로 이 중 58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초안산 근린공원이 인접하고, 1호선 월계역 역세권 단지다.

최근 청약자들이 몰렸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도 물량이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고 29층, 총 1745가구 규모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왼쪽 조감도)'를 선보인다.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한영중·고, 상일여중·고, 한영외고 등이 위치한다.

고덕지구에서는 최근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평균 11.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전용 59㎡형의 경우 3290건의 청약이 몰리며 65.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수색증산뉴타운의 마수걸이 단지도 나올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짓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오른쪽 조감도)'로 총 1192가구 중 45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깝다. 상암DMC까지 직선거리가 260m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KCC건설이 시공한 'H HOUSE 대림 뉴스테이'가 나온다. 서울 도심의 첫 뉴스테이로 서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초역세권이다. 입주는 8월에 가능하다.

이 밖에도 △힐스테이트 미사역(2024실)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924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64실) △다산지금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1282가구) △군포 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Ⅲ(750가구) △포항 초곡 호반베르디움(824가구) 등이 공급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대우건설, 새 사업장에 '스마트 건설 시스템'

IoT·ICT 활용 안전·품질 통합관리

대우건설은 지난해 개발한 '대우 스마트 건설(DSC)' 시스템을 신규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DSC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건설 현장의 모든 안전과 공정,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시공관리 자동화 기술이다.

DSC시스템은 3D설계를 기반으로 한 시공 정보 수집을 비롯해, 이를 스마트맵으로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기술, 현장에서 IoT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작업자가 조회·활용하는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근로자 - 장비 - 공정'을 통합 관리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로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일본·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정착될 경우 건설 생산성은 약 25% 이상 높아진다.

대우건설은 DSC의 정식 도입에 앞서 서해선철도 4공구, 위례우남역 푸르지오 현장을 DSC 시범현장으로 운영해 왔다.



건설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안전·공정·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대우 스마트 건설(DSC)'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보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대우건설 관계자는 "DSC시스템으로 시범현장의 작업 및 안전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현장뿐만 아니라 인도 교량공사현장, 보츠와나-잠비아 카중굴라 교량공사현장에도 시스템 적용을 추진 중"이라며 "신규 프로젝트 중 토목현장의 설계·품질·공정·안전 등 전 과정에 특별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DSC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LH, 위례신도시 마지막 민간 공동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공동주택용지 A3-2, A3-10블록 2필지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A3-2(3만1435㎡), A3-10(3만7616㎡)블록은 85㎡ 초과 분양아파트 용지로 각각 442가구, 500가구다. 토지 사용은 2019년 5월부터 가능하다.

2개 블록 모두 청량산이 가깝고, 장지천 조망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역시 인접한다.

위례신도시는 677만㎡(4만5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 강남과 약 10㎞, 잠실과 5㎞ 거리에 위치하며, 송파대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철 8호선 및 분당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장지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타운, 세곡지구 등이 위치하며, 기존 교통망과 더불어 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입체화, 우남역(가칭) 신설, 신교통수단 도입 등 총 21개 교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 10월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가 성황리에 공급됐고, 이번에 출시하는 2필지 역시 건설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공급금액은 A3-2블록 1605억 원, A3-10블록 1892억 원이다. 공급일정은 19일(1순위), 20일(2순위)로 진행하며 계약체결은 23일로 예정돼 있다.

시태일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2015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공급하는 위례 마지막 민간공급 공동주택용지로 성공적인 매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오늘 배우는 내일의 디지털 금융

디지털로 만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학교에는 없는 교실이 신한은행에 열렸습니다

내일의 금융을 미리 체험해보는 디지털 금융 교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며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금융의 주인공이 되도록

신한은행이 앞선 디지털 금융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신한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이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금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에서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배우는 신한은행의 체험형 금융 교육입니다.

교육신청 : 신한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아름다운 은행(www.beautifulshinhan.co.kr) – 청소년금융교육센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사법 방해냐, 기밀대화 무단공개냐… 코미·트럼프 '진흙탕 싸움'

코미 前 국장 청문회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 다섯차례 발언
"플린 놓아주자는 요청 충격적… 수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여 문서화 필요성 느껴 메모… '사법 방해' 적용 여부 특검이 판단"
트럼프, 전면부인 기밀대화 유출에 초점… 메모 증거여부 쟁점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증언 주요 포인트

- 트럼프가 지도력 부족 등 자신을 해임한 이유로 든 것은 거짓말
- 트럼프와의 2월 대화에서 마이클 플린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느껴
-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어
- 대통령이 거짓말할 것 우려해 기록 남겨
- 국장직 임기 유지 대가로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려 해
- 지난달 친구 중 한 명에게 언론에 대화 내용 넘길 것 요청
-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게이트' 파문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에 의해 전격적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의회 증언에서 작심하고 핵폭탄급 사실들을 폭로했으나 트럼프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코미 전 국장은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해 대통령 탄핵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법 방해'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CNN방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무려 5차례나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모두 연설에서 코미는 FBI 내에서 자신이 인기가 없으며 FBI가 혼란스러워졌다는 트럼프의 해임 이유 주장에 대해 거듭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회동을 문서화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를 묻자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회동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미는 이날 러시아 게이트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월 사임하고 나서 하루 만에 트럼프와 회동했던 당시를 털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은 좋은 사람이다. 그냥 플린을 놓아주자라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플린 수사 중단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이런 요청은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미국 대통령이 나와 독대하면서 (플린을 놓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코미는 "다만 트럼프의 메시지가 '명령'은 아니었다며 러시아 게이트 수사 전반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발언이 사법 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코미는 또 지난 1월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 전날 서면증언서 내용도 확인하면서 트럼프가 임기 보장을 미끼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정문회 이후 트럼프 측도 강하게 반격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마크 카소위츠가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이 코미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거나 충성 맹세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미의 증언은 오히려 트럼프가 러시아 수사를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미 전 국장이 자신의 친구를 통해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에 2월 플린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와의 회동 기록 내용을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카소위츠는 "이날 코미는 친구들에게 기밀대화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은밀하게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이번 유출에 대해 적절한 기관이 나서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의 '사법 방해' 논란에 '기밀대화 무단 공개'로 초점을 바꾸려 시도한 것이다.

트럼프 측은 코미의 거짓말쟁이 주장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솔직히 이 질문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미의 증언을 통해 트럼프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 윤곽의 일부가 드러났다며 다만 트럼프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 방해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있어 현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뮬러 특검에 무게가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미 전 국장이 사적으로 작성한 메모 증거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전히 트럼프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의 이메일이 대량으로 유출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 오바마 전 정권은 러시아 해커가 관여했다고 단정했다. 이를 트럼프 진영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트럼프 탄핵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인들 반응…

"코미가 미국 역사 바꿨다
속임수 쓰는 사람 용납 안해"
"변화없을 것" 회의적 시각도

'슈퍼볼(Super bowl)'을 방불케 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청문회가 8일(현지시간) 미국을 들썩이게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를 지켜본 미국인들의 평가는 다양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미국 독자들의 반응은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개가 넘는 댓글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상위에 링크된 댓글 중 하나는 "미국 국민에게 오늘이 전환점으로 작용하기 바란다"이며 "우리는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독자는 "코미가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고 밝혔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복스는 "코미의 증언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작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선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복스는 "코미의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코미의 증언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도 많았다. NYT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코미의 증언은 미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와 행동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것. 그는 "공화당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300명의 추천을 받은 한 독자는 댓글에서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이번 증언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그렇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로 판명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독자는 "정치에서는 항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게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미를 향한 저격 글도 보였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코미는 쇼보트(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다", "코미는 역사상 가장 불만이 많은 FBI 수장이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코미 증언에도 남는 의문점

① 러 대사 세차례 만난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함구

② 녹음 테이프 없을 확률 높아
③ 2월 14일 독대 이유 안 밝혀
④ 현 대통령 청문회 증언 주목
⑤ 트럼프 조사 대상 포함 여부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영국 방송 BBC는 코미의 육성 증언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며 5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이 밝힐 수 없었던 사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7월과 9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에도 두 사람 간 만남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코미는 이날 청문회에서 "세션스가 러시아와 내통한 것이 문제가 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세션스와 키슬랴크 내통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는 코미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지난달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코미는 우리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없길 바라야 할 것"이라고 썼다. 코미도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면 공개되어야 한다"며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코미와 트럼프의 대화가 담긴 테이프는 없을 확률이 높다고 BBC는 전했다.

세 번째 의문은 지난 2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과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자리를 피해 달라고 말한 이유다. 코미는 당시 세션스와 쿠슈너가 동석 중이었는데 둘은 자리를 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들이 떠난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코미는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네 번째는 트럼프가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다. 공화당의 리차드 버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코미의 말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청문회장에 나올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1919년 8월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우드로 윌슨 전 대통령이 국제연맹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다. 윌슨 전 대통령 외에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증언한 적이 있으나 모두 임기를 마친 뒤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여부다. 코미는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치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코미가 확인해줬다"며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코미의 증언이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설의 몸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미의 증언과 무관하게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검으로 임명돼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 중이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英 보수당, 압승은 커녕 과반 의석도… 메이, 캐머런 전철 밟나

출구조사 결과 16석 잃어
'하드 브렉시트' 위해 던진
조기총선 카드 자충수
언론은 이미 후임자 거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던진 '조기 총선' 카드가 결국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자충수가 될 것인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출구조사가 나오는 등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브렉시트'를 놓고 도박을 했다가 낭패를 본 전임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BBC 등 영국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10시 투표 마감 직후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당인 보수당 314석, 노동당 266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4석, 자유민주당이 1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수당은 현재(330석)보다 16석을 잃어 과반 의석을 놓치게 되는 반면 제1 야당인 노동당은 현재 229석에서 34석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는 사전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것이다. 사전조사에서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이 이처럼 빗나가면서 앞으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면 조기 총선 카드를 던진 메이 총리는 과반 의석 상실에 대한 거센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지난 4월,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장고 끝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때만 해도 보수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컸다. 하지만 이후 테러가 잇따라 터져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하면서 유권자 사이에 메이 정권의 안일한 테러 대응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고, 이번 총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인 캐머런 총리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브렉시트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2015년 총선 당시 보수당 내 강경파를 달래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EU와 협상을 벌여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반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3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브렉시트 찬성이 51.9%, 반대가 48.1%였다. 캐머런이 사임하고 내무장관이던 메이가 지난해 7월 26년 만에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이번 총선 참패로 벌써부터 메이 총리의 후임이 거론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가 조기 총선이라는 도박을 했다가 길을 잃었다며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앰버 러드 내무장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 마이클 팰런 국방장관 등 4명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존슨은 대표적 탈퇴파로 메이가 못 이룬 하드 브렉시트를 이끌 적임자로 손꼽힌다. 러드는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받아왔으며, 브렉시트에 대해선 메이 총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데이비스는 2005년 당수 선거에서 패한 경험이 있어 차기 총리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FT는 전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8일(현지시간) 총선 투표가 마감된 후 나온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사진제공 BBC

“제약업계, M&A·라이선싱서 기회 찾아야”

코디엠 사내이사 취임한 필립슨 머크 부사장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투자자 대상 초청 강연
대형 제약사 성장세 둔화에 직면… 中企와 협력 확대



제임스 필립슨 머크 수석 부사장이 8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코디엠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대 기업 머크(Merck)의 수석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코디엠은 지난달 16일 제임스 필립슨(사진) 머크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해 그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화이자와 함께 전 세계 양대 제약사 중 하나인 머크의 수석 부사장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종일 투자자들의 확인 전화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점에서 만난 필립슨 부사장은 “머크에서 30년 동안 쌓은 경험이 코디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코디엠이 시장에서 인수·합병(M&A)과 라이선싱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슨 부사장은 30년간 머크의 사업개발 및 마케팅을 담당해 왔다. 2009년 411억 달러(약 46조 원) 규모의 셰링 프라우 인수도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는 또 머크의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의 초안을 기획했고, 모든 주요 제품의 마케팅 총괄을 역임했다.

그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작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하우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데, 상위 대기업보다 중소 제약·바이오사의 성장 폭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슨 부사장은 “대형 제약사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수익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것”이라며 “대형 제약사들은 바깥쪽 네트워크망을 넓히고 있다. 매출의 40~60%를 중소기업과의 라이선싱과 M&A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슨 부사장은 한국의 제약사 및 업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머크가 삼성, 한미약품과 이미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부의 육성 의지로 인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된 혁신 벤처기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중 그는 머크가 아닌 코디엠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현재 머크의 현직 부사장으로 있는 만큼, 코디엠과 상호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두 회사의 규모 자체가 매우 달라 크게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코디엠이 앞으로 머크와 라이선싱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오른쪽)가 8일 가뭄피해 지역인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이흥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에게 가뭄피해 복구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NH투자證, 전남 무안에 가뭄피해복구 5000만원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 및 임직원이 8일 가뭄피해 현장인 전남 무안지역을 방문, 가뭄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현지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일원은 최근까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해안가 지천 수위가 낮아져 염분 농도가 상승해 제대로 급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모내기를 마친 논의 약 70% 가까이 고사 직전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안정적 급수 위해 사용 예정
임직원 영농지원 일손돕기도

김원규 대표와 김광훈 경영지원총괄부사장, 정해수 중서부지역본부장 및 박대영 경영전략본부장 등 NH투자증권 임직원은 이날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를 통해 농가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지하수 관정 공사와 양수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은 가뭄피해 극복 및 영농지원을 위한 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6월 현재 1개의 명예이장 결연 마을에 32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원규 대표는 “NH투자증권은 농협그룹의 주요 일원으로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농가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세계적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는 ‘건축가의 과제’

“건축물에 역사 반영…생명력 불어 넣어야”

서울대 미술관서 공개 강연
‘비하인드 빌딩스’ 주제 설명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등
전세계 곳곳에 대표작 남겨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라파엘 모네오(80·사진)가 8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MoA) 오디토리움에서 공개 강연을 통해 건축물과 역사성의 관계를 강조했다.

모네오는 1996년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메리다의 국립 로마예술박물관, 산 세바스티안의 쿠르살 콩그레스 센터 등의 대표작이 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모네오는 이날 ‘비하인드 빌딩스’(BEHIND BUILDINGS)를 주제로 자신의 대표작에 숨은 뜻을 설명했다.

그는 “건축가는 건축물에 역사가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늘 고민해야 한다”며 “역사적 영속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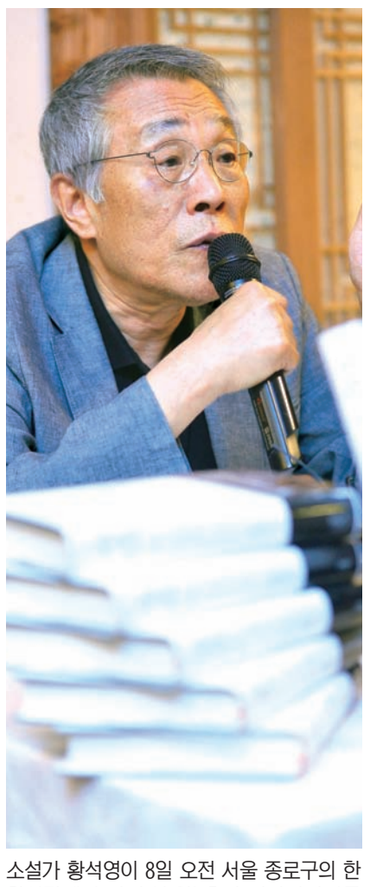
모네오는 특히 메리다의 국립 로마예술박물관을 소개하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역사성을 꼽았다. 메리다는 이베리아 반도의 모든 도시 가운데 로마 시대에 만든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작은 로마’라고도 불린다. 모네오의 작품인 메리다 국립로마예술박물관은 과거 로마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성을 반영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통적 방식을 통해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민감한 공간에 공공성과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건축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서울대 건축학과 동문인 김정식 목천문화재단 이사장의 기부금 10억 원으로 마련된 강연 시리즈 ‘에스엔유-목천 렉처스’(SNU-MOKCHON Lectures)의 첫 프로그램으로 이날 300여 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평생 자유 추구했지만 늘 자유롭지 않은 인생”


소설가 황석영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자전 ‘수인’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소설가 황석영, 自傳 ‘수인’ 출간
베트남전·광주항쟁·방북·망명 등
근현대사 거친 자신의 생애 정리

“작가는 누구나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작가에게는 그 자체가 억압입니다. 그런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놓여나고 싶어하고 사회적 요구와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갈망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황석영(74)은 8일 자전(自傳) ‘수인(囚人)’(문학동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시절이 감옥에 있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작가로서, 개인으로서 한반도에 살면서 갈망했던 자유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제목을 바꾸면 ‘자유란 무엇인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수인’은 황석영이 유년 시절부터 베트남전, 광주민중항쟁, 방북과 망명, 귀국 후 수감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살아낸 그의 생애를 정리한 자전이다. 집필과 개고를 몇 년간 미루다가 6 10 항쟁 30주년에 맞춰 세상에 나오게 됐다.

그는 “감옥을 현재로 놓고 들락날락하면서 시간을 교직했다. 작가로서 평생 자유를 추구했지만 늘 자유롭지 않은 인생이었다”면서 “이 책을 내면서 비로소 출감한 것 같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하지만 진정 석방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가졌던 소회도 에필로그로 덧붙였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체가 조금 더 갈 줄 알았다. 나는 우리 국민들, 이 사람들을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 살기 싫었다. 너무 답답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때려치고 싶었다. 그런데 다 늦게, 이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냈다. 돌이켜보면 이곳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었다. 한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다. 끝까지 차오른다 싶으면 사회정치적,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곡절 많은 생을 살아온 황 작가는 “나를 여기까지 끌고온 것이 문학” 이라며 “나는 문학주의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문학이라는 신념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냈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캄캄한 밤에도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처럼 문학은 나를 끌고 왔다. 문학은 나의 인생이었고, 나의 집이었다. 집을 떠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잊은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한국여성 인물사전 〈129〉 순경태후(順敬太后)

16세에 요절한 태자비…사후 태후로 추봉


강화 가릉.

순경태후(順敬太后·1222~1237) 김씨는 고려 제24대 왕 원종이 태자 시절 맞아들인 비(妃)이다.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김약선(金若先)으로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 어머니는 무인집정인 최우(崔瑀[怡])의 딸이다. 1235년(고종 22) 14세의 나이로 고종의 태자인 왕전(王倎, 뒤의 원종)의 비(妃)로 간택되어 경목현비(敬穆賢妃)로 책봉되었다.

이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외할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아버지는 그런 외할아버지의 후계자로 거론되었다. 외할아버지에게 적자(嫡子)가 없고, 기생첩 서련(瑞連)이 낳은 두 아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신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모계 쪽의 흠결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왕자라도 천인 출신의 궁인이 낳았으면 소군(小君)이라 하여 중으로 만들었겠는가! 최우 역시 아들 둘을 송광사(松廣社)로 보내 삭발시키고, 선사(禪師) 칭호를 주어 각각 단속사(斷俗寺)와 쌍봉사(雙峰寺)의 주지로 있게 하였다. 혹시 후계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는 명이 짧았다. 아들(충렬왕)과 딸 하나씩을 낳고 1237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최고의 문장가였던 이규보(李奎報)는 그녀의 죽음을 애통하는 글에서 그녀가 유순하고 고운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처음 시집올 때에는 아직 다 차지 않은 달과 같더니, 갑자기 운명하니 쉽게 이우는 꽃과 같도다[始來兮猶月未滿, 倏往兮如花易凋]”라고 묘사하고 있다. 딸의 존재는 이규보의 글에서만 보여,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한 듯하다. ‘고려사’ 공주전에도 언급이 없다.

그녀는 병이 들어 손쓸 틈도 없이 급박하게 사망한 듯하다. 1237년(고종 24) 정유년 7월 29일 병이 들어 사당리(祠堂里)의 사제(私第)에서 운명하자, 곧 서울 남쪽의 본가로 옮겼다가, 10월 7일 강화 가릉(嘉陵·사적 제370호)에 후비(后妃)의 예(禮)로 장사지냈다. 남편 원종이 즉위한 뒤인 1262년(원종 3) 정순왕후(靜順王后)로 추봉되었고, 아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르자 순경태후로 추존되었다. 손자인 충선왕이 원나라 무종(武宗)이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우니, 1310년(충선왕 2)에 원에서 국서를 보내 그녀의 덕을 찬미함과 동시에 “그의 아들은 우리 황실의 귀한 사위이며, 더욱이 어진 손자가 있다”며 ‘고려왕비(高麗王妃)’로 추봉하였다.

순경태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태자비로서 짧은 생을 살았다. 그러나 사후에 태후로까지 추증된 흔치 않은 사례이다. 그녀의 능은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번지에 있다.

권순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순정파 메시, 9년 사귄 연인과 이달 결혼

30일 고향 친구 로쿠소와…혼전 이미 아들 2명 있어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사진)가 오랜 연인 안토넬라 로쿠소(29)와 이달 말 정식으로 결혼한다.

AFP통신은 9일(한국시간) 메시의 개인 홍보 에이전시 발표를 인용해 메시와 로쿠소가 30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결혼식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로사리오는 메시와 로쿠소의 고향으로 두 사람은 메시가 5살 때부터 알고 지냈고 2008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2년에 첫아들 티아고를, 2015년엔 둘째 아들 마테오를 얻었으나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다.

로사리오의 대성당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결혼식에는 루이스 수아레스 등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상당수 참석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대법원** 〈승진〉 ◇법원부이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이건성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최용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백수옥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행규 ◇법원서기관 △대전고등법원 빈중복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재후 △의정부지방법원 이용관 조국제 △인천지방법원 이충남 △수원지방법원 전수진 △춘천지방법원 이근섭 김훈대 장준채 김동호 △대전지방법원 서병선 전종학 △대전가정법원 문제호 △청주지방법원 임준홍 △대구지방법원 도윤옥 △대구가정법원 이근하 △부산지방법원 최상태 황인호 박진덕 김승대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전략투자운용부장 안재환

◆**이화여대** △기획처장 겸 엘텍융합교육혁신본부장 김상택 △재무처장 겸 자금팀장 류한영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준희 △부회장 전용상 윤여진 △사무총장 도형래 △감사 이창은 권금상 △비상근 부회장 전태수 김정대 전규열 △홍보대사 박형욱 김석환 △어린이홍보대사 이현우 △특별위원장 최정변 최지혜

◆**매일일보** 〈승진〉 △경제사회부 부국장 이상민

부음

▲**김정태**(전 KBS 라디오 부주간·동양고속 사외이사) 씨 별세, **준수**(SBS PD) 씨 부친상 = 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02-2258-5940

▲**김우택**(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총괄대표이사)씨 부친상 = 7일, 성모병원, 발인 10일, 02-2258-5940

▲**하정만**(유한양행 약품사업본부 상무) 씨 별세, **송연주**(전 여의도중 교사)씨 남편상 =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02-2072-2018

▲**윤수남** 씨 별세, **오승모**(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승우** 씨 모친상, **이복균**(경기실업회장)·**한영노**(개인 사업) 씨 장모상 =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0일, 02-2072-2020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그리운 여자들

여성 대통령(大統領)을 먼저 낸 것으로 한다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선 나라다. 그러나 여성 대통령의 끝이 몰락하면서 그 자부심마저 내려놓아야 했다. 언제 한국에 여성 대통령이 다시 나올지 참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여성이 인간을 앞지르는 영웅적 실화를 만들어 놓은 경우는 정치 역사보다 현실에 더 많았다. 유관순, 신사임당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고대소설에 나오는 춘향이나 심청, 장화홍련, 박씨전의 인물들을 떠올린다. 이 인물들은 모두 결손가정의 불행에서 행운을 스스로 찾은 여성이다. 특히 춘향이의 약속정신과 심청이의 약속정신은 인간의 위치를 한 단계 오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것은 예술정신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대단한 여성이 세계 예술계에는 많다. 시대를 앞서 비운의 삶을 살았던 여성 중에는 카미유 클로델(프랑스, 1864~1943)이 있다. 프랑스는 예술정신을 높이 평가받는 클로델을 기리기 위해 국립미술관을 개관하였다. '로댕의 연인' '비운(悲運)의 조각가'로 알려져 있는 클로델은 비로소 당당한 예술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로댕 탄생 100주년에 이루어진 일이다.

제자이면서 모델이며 숨은 연인이었던 클로델은 모든 걸 바쳤음에도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만을 가지고 로댕을 떠나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여러 설이 있다. 클로델을 사랑했지만 앞지르는 천재성을 질투하여 일을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설,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작품을 사 그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설도 있다.

조르주 상드(프랑스, 1804~1876)도 대단한 여성이었다. 쇼팽의 연인 상드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쇼팽에게 바쳤고 쇼팽의 걸작은 그때 태어났다고 한다. 남장(男裝)을 즐겼고, 여성에게 금지된 흡연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의 자유연애를 질타하는 사람들에 의해 100편이 넘는 소설 중에 단 몇 편만이 남아 아쉬움이 크다.

버지니아 울프(영국, 1882~1941)는 여성 차별에 반기를 든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 있다. 1915년 '출항'을 간행하면서 작가로 데뷔한 울프는 여성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거기까지 오는 길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어린 시절 의붓오빠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신경쇠약에 시달려 자신의 작품 평가도 기뻐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고 강물에 뛰어들었던 울프의 삶은 지금의 여성들에게 분노와 갈채를 보내게 한다. '자기만의 방'은 여성 차별에 항거하는 함성이 가득한 책이다.

화가 프리다 칼로(멕시코, 1907~1954), 시인이자 소설가 실비아 플라스(미국, 1932~1963)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혜석(1896~1948)과 전혜린(1934~1965)도 꼽고 싶다. 하긴 저 멀리 결코 한국 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진도 있다.

나혜석은 여성 차별을 인류 세계에 통보하고 사라진 대담한 인물이다. 전 애인의 무덤에 김우영을 데려가 세 번의 절을 시키고 결혼한 나혜석은 결국 최린과의 불륜으로 이혼을 당하지만 지금 바라봐도 섬뜩하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 '자화상' '파리풍경'의 대담한 터치와 과감한 색채는 그녀의 인생을 앞서게 한 그녀의 심장이거나 영혼이었을 것이다. 전혜린도 마찬가지다. 불행했지만 분명한 시대의 흔적을 남긴 그들을 만나 보고 싶다.

正論



이유리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전공 교수·한국뮤지컬협회 부이사장

시대의 동반자로 부활한 윤동주 이상…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상실의 시대, 판타지 멜로와 정치물에서 위안받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2017년의 한국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며 초월적인 판타지 멜로에 빠지거나 현실을 직시하며 정치물에 관심을 가지리라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적중하는 중이다.

공연 분야도 다르지 않다. 유난히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 시대의 동반자로 부활한다. 특히 윤동주, 백석, 이상 등 시인들의 시가 공연 무대에서 입체적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경향이 강한 젊은 관객들을 울린다. 혼돈된 정치 상황의 희생양이었던 그들, 시를 쓰면서 그 시대를 외면하거나 저항하거나 초월했던 그들을 표류하는 이 시대에 불러내 자기 동일시의 판타지를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싶다.

최근에 굴곡진 한국 근대사 속 두 인물을 공연에서 만났다. 뮤지컬 '스모크'는 시인 이상의 분열된 자아를 통해 시대를 앞서간 천재 시인의 내면을 공감하게 해주었고, 연극 '불량청년'은 독립 열사 김상옥을 통해 잊고 지내는지도 모를 자신 안의 초인(超人)을 만나게 해줬다.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마치 여행하듯 판타지 세계에서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일 것이다. 또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모크'의 추정화 연출은 시인 이상의 내면적 고뇌에 집중했다. '스모크'에는 이상의 내면이 분리된 인물 셋이 등장한다. 난해한 시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며 죽음으로 그 세상을 떠나려는 '초(超)', 그럼에도 시 창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솟구치는 '해(海)', 그 분열된 자아 사이에서 삶을 각성시키는 '홍(紅)'이 그들이다.

그들은 거침없이 외친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저들의 시대와 내 시대는 한참 떨어져 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없어. 그저 연기야"라고. 관객들은 그 세 인물에게서 '이상'을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재발견한다.

'불량청년'의 이해성 연출은 일제강점기의 의열단을 통해 오늘의 'N포 세대' 청년 속에 잠재된 초인을 만나게 한다. 청년 실업자 김상복은 유치원을 나온 이후 줄곧 바빠도 여전히 학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에 허덕이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데, 어느 날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독립 열사 김상옥의 동상(銅像) 역할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는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상옥 열사와 의열단 청년들의 독립 투쟁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김상옥과 의열단의 신념, 희생을 향해 "위선"이라고 외치며 "목숨을 보전하라"고 말려 댄다.

고달픈 실업자 인생이라도 어떻게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상복의 모습을 지켜보면 결국 김상옥이나 김상복이나 주어진 현실에 맞서 투쟁하는 한 가지 모습이구나 싶다. 일본 경찰의 총탄에 죽어가는 김상옥을 향해 김상복이 이육사의 시 '광야에서'를 들려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누구나 본질 깊숙이 초인을 품고 태어난 것이리라.

뮤지컬 '스모크'와 연극 '불량청년'이 주목받는 점은 추정화 연출과 이해성 연출이 역사적인 인물을 치밀하고 집요한 진정성과 남다른 시각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관객들을 시간 여행에 몰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존 인물을 판타지로 되살려 공감하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연출의 면에서도 두 창작자의 내공이 헤아려진다.

추정화와 이해성 두 연출가는 어두운 시대에 떠밀려 요절한 두 실존 인물의 비극을 뒤집었다. "한 번만 더 날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고 마지막 대사를 외치며 비상과 초월의 에너지를 내뿜는다. 관객들은 눈시울을 적시고 '이상'과 '김상옥'을 실체화하며 스스로의 삶을 추스른다. 두 연출가는 그것이 공연이 지닌 판타지의 힘임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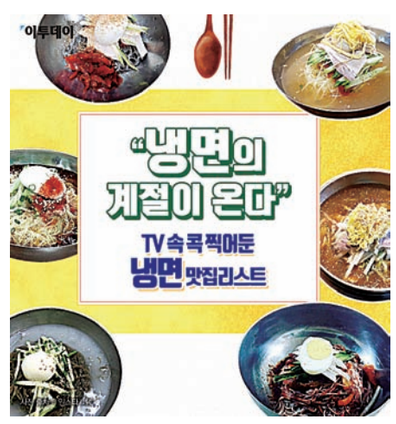
한 컷 골라서 탈 수 있다면…



오늘도 공무원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합격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몹시 힘들다. 취업난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이 무섭고 두렵다. 하지만 잠시 행복한 상상에 빠져본다. 오늘은 어떤 직군을 선택할까?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순간만큼은 원하는 직군으로의 프리 패스다. 어느 쪽이든 "어서 들어오라"며 초록색 화살표가 반겨준다. 공시족의 섬, 노량진의 'welcome'이 '웃프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카드로 보는 세상



여름철 대표 음식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냉면입니다. 감칠맛 나는 시원한 국물에 말아 먹든,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든, 이름이 주는 청량감만큼 더위를 물리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냉면 하면 떠오르는 알싸한 함흥냉면과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평양냉면을 비롯해 메밀면으로 만드는 황해도식 냉면과 명태회가 일품인 회냉면 맛집을 알려드립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종종 소개되는 곳들입니다. 일부러 찾아가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맛집들입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10NVvY

온라인 와글와글

서울 거주 30대 절반 월세 주택 거주 "富益富 貧益貧 갈수록 심하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 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택 소유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31.3%였다.

자가 주택 비율은 42.1%였지만 월세가 늘고 전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서울 거주 30대의 45.6%가 월세 주택에 살고 있었다. 1년 새 4.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제 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30대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셋값이 뛰자 아예 빚을 내 집을 산 30대도 24.8%로, 2015년(12.0%)보다 배로 늘었다.

네티즌은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만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지네", "1인 1채로 제한하면 집이 남아서 살 만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이슈&인물

"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성공 가능"

새 정부 '조세개혁' 어떻게

박 형 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사회 합의 없이 진행하면 역풍

비과세 감면 축소·세율 정상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고쳐야

조세저항 줄이고 국민공감 얻어

'국회 조세개혁 특별기구' 구성

여야 머리 맞대 정책탄력 기대

재정여력 확보·성장동력 확충

병행하는 '이원적 재정정책'을

성장률 모형 만든 거시재정 전문가

1967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광주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거시재정 전문가이다. 1990년 1월 한국은행 외환관리부에서 외환 관련 업무가 그의 사회생활 시작이었다. 이때 거시재정에 눈을 떴고, 미국 유학에 이어 국제부와 조사국을 거치면서 거시재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박 원장은 국가예산이 점점 커질 것을 대비해 거시재정 분야를 깊게 파고들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박 원장은 성장률 모형도 만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랏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 공약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111조 원이 넘고, 올해 여파까지 고려하면 1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재임기간인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간 35조6000억 원으로, 세부 실천 계획에 따라 재원은 더 늘 수 있다.

이 중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필요 재원의 62.9%(22조4000억 원)를 마련하고, 나머지 37.1%(13조2000억 원)는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출구조조정은 대통령 임기 첫해에는 이전 정부의 사업 물꼬를 틀어 재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증세는 자칫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켜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7일 우리나라 거시재정 분야를 처음으로 설계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회적인 합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될 땐 오히려 역풍(逆風)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보면 세수항목 재설계와 속도 조절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공적인 증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실효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 상황에서 증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원장은 "세율을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낮은 세율 항목 정상화, 자본소득 등 비근로소득 과세, 각종 양도차액 과세 등의 기울어진 운동장(세율)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국세청에 신고된 2015년 12월 결산법인의 실효세율을 보면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 기준 과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효세율이 17%로 나온 반면, 500억 ~ 1000억 원 사이의 사업장 실효세율은 오히려 19.4%로 더 높게 징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그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효과는 없으면서 마치 보조금 주듯이 퍼주는 조세 정책을 바로잡은 후에 세율을 인상해야 조세 저항도 줄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조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여러 개의 조세 개혁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조세개혁 특별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여야가 모인 특별기구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면 증세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부담률 19.4%…OECD국 중 낮은 편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어느 수준인가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6년 조세부담률이 19.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인 2007년 19.6%에 근접하고 있다. 또 국민부담률은 2015년부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현재 26%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좋은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는 국민적인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된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재무부 작업팀, 스웨덴 조세위원회, 덴마크 조세위원회 등 외국 사례와 과거 참여정부 때의 경험을 감안할 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 내 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개혁 방안의 초안 마련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논의기구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정안 마련과 국회에서 이해당사자 협의 과정을 통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하다."



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만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조세 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방향은 세율 목표를 정하고 무작정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 증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우리나라의 평균 실효세율이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적정한가

"소득세 실효세율(보조금 제외)은 소득 수준, 가구 구성에 관계없이 외국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다. 다만, 소득세 부담은 빠른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보다 적절한 증가 속도를 유지하며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소득세는 모든 계층에 대한 세부담 인상이 필요하지만, 세부담 인상의 왜곡 효과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감면과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 과세범위 확대 등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명목세율이 높은 미국, 호주, 일본보다 낮으나 명목세율이 낮은 캐나다보다는 높다. 법인세 명목세율은 국가 간 조세 경쟁 정도를 감안해 결정하고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의 비율로서 판단하는 게 좋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는 각종 조세 지원 등의 효과이므로 이를 어느 수준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법인세 인상, 재정 감안해 진행해야

△현재 22% 수준인 법인세율을 25%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인세 인상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지

"법인세율 조정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 측면과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등 장기적인 세원 확보 측면을 충분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법인세율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의 비교보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효과성을 잘 보여주는 방식이다. 법인세율 조정의 장·단기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정보다 새 정부 공약과 같이 '先(선) 비과세 감면 정비, 後(후) 법인세율 인상' 원칙하에 향후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채무 20년간 10배 증가…관리 필요

△국가부채 증가율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수립 이후 국가부채 증가 추이를 볼 때 최근 국가부채 급증은 매우 이례적이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안정적이던 국가부채가 1차 석유파동 전후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20여 년간 하락세가 지속해 본래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명목GDP는 3.4배 증가에 그친 반면, 국가채무는 10.4배로 급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부채 증가는 대부분이 대응자산 없이 조세 부담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적자성 채무에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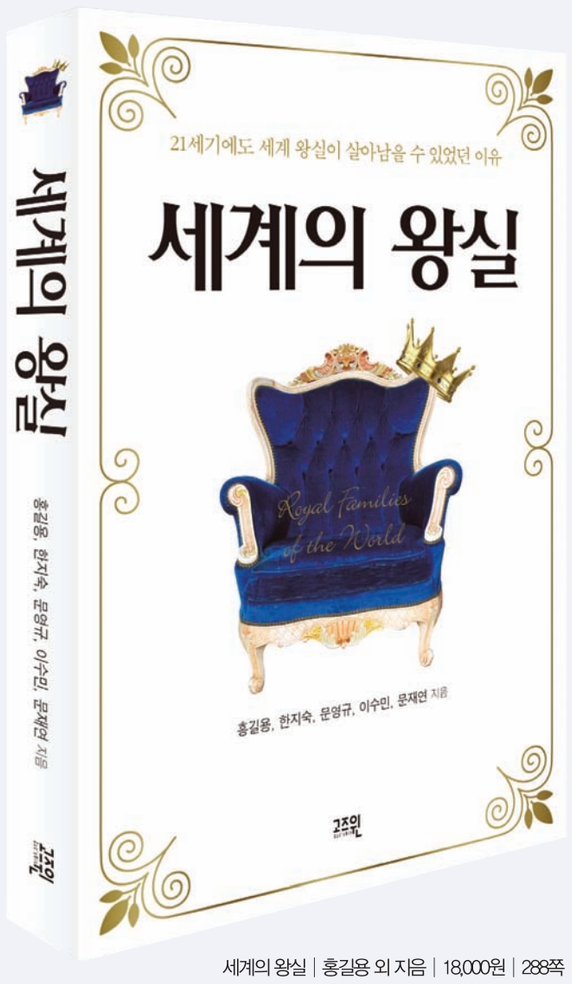
△현재 정부의 부채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국가부채 규모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급증 추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은 통계 입수가 가능한 32개 OECD 국가 중 27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은 작은 편이다. 그러나 2010 ~ 2016년 기간 중 국가부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0.3%(국내 기준 8.5%)로 OECD 평균 6.6%를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중 국가부채 증가율은 32개 OECD 국가 중 6위로 매우 높다."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

"향후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단기·중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이원적' 재정 정책(Intertemporal Fiscal Policy)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세계의 왕실 | 홍길용 외 지음 | 18,000원 | 288쪽

21세기에도 세계 왕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세계의 왕실

Royal Families of the World

왜 왕을 둘까?

"인류 역사에서 왕은 오랜 기간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절대 군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런데 민주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도 왕을 국가 원수로 두는 곳들이 아직 상당하다. 왜 왕을 둘까?"
아랍의 봄을 지나 우산 혁명을 거쳐 우리의 촛불 집회까지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그런데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갈망이 절실한 지금도 아직 왕을 두는 나라들이 있다.

여전히 필요한 왕의 권위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왜 그런 권위에 목마른가? 어쩌면 세계의 왕실을 소개하는 이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권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와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권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아직 민주주의가 만개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형인 유럽의 국가들까지 여전하다.

전국서점에서 절찬판매 중

고즈윈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서교동 481-5)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Senior Health Concert

시니어 헬스 콘서트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건강 토크 콘서트

주제 치매와 마주보기 / 척추 알면 10년 젊어진다

참가병원 가천대 길병원, 우신향병원 | **초대 가수** 김범룡, 여행스케치

일자 6월 27일(화) | **시간** 17:00~ | **장소**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빌딩 WAY홀

현직 의사와 MC, 가수,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며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드리는
의학 버라이어트 토크쇼!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엔 애매하고 대중매체 믿기가 그렇고…
시니어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정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주겠습니다.

선착순 마감. 참가비는 무료,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주최 이투데이 PNC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0 이투데이 빌딩 **참가 문의** 02)799-6730



아직도 '카지노의 도시'로만 기억하세요?

구석구석 문화유산 뚜벅뚜벅 여행 '잭팟'





인터파크투어는 '럭셔리 마카오 5일' 여행상품을 주말 여행지로 제안한다. 마카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성 바울 성당과 세나도 광장, 몬테 요새 관광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터파크투어

주말에 어디 갈래?

아시아의 작은 유럽 '마카오'

동서양 종교·문화의 조화 '성 바울 성당'

'물결 타일' 세나도 광장·몬테 요새까지

독특하고 아기자기한 이색적 풍경 많아

직항 늘며 여행객 작년보다 190% 증가

인터파크투어 '럭셔리 5일' 특가상품 마련

4001개 객실 쉐라톤그랜드 호텔도 유명

인천공항에서 3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마카오가 최근 들어 주말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예전에는 마카오가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며 홍콩 여행 중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곁다리 여행지였으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24시간 다양한 매력을 지닌 마카오를 알기에는 당일치기 짧은 일정으로 부족하다. 도시 구석구석 30여 개의 세계문화유산과 화려한 대규모 호텔 단지, 엔터테인먼트 등 그 자체만으로도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마카오 직항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마카오를 중점적으로 방문하는 자유여행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올 1~5월 마카오를 여행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90% 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여행수요에 발맞춰 인터파크투어는 지난해 마카오 전문몰을 오픈했으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파크투어는 이번 온라인 여행박람회 추천 여행지로 마카오를 선정해 전용 특가 상품을 마련했다.

인터파크투어의 '럭셔리 마카오 5일' 여행상품은 마카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성 바울 성당과 세나도 광장, 몬테 요새 관광 코스를 포함하고 있다. 전 일정 럭셔리 호텔에서 숙박하며 포르투갈식 특식을 제공한다. 인터파크투어 고객 특전으로 파리지앵 에펠탑에서 마카오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100홍콩달러 상당)도 제공한다. 마카오는 활발한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중국과 서양 간에 가장 오랜기간 교류가 있었던 지역으로, 동양과 서양의 미적·문화적·건축적·기술적 영향력이 만나 독특하고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시아의 작은 유럽이라고도 불리며 세나도 광장, 성바울성당 등 아기자기한 명소가 많아 특히 여성 여행객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성 바울 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마카오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다. 이탈리아 선교사들에 의해 1582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세워졌으나 1835년 태풍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정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실돼 지금은 일부 모습만 남아 있는 상태다. 동서양의 종교와 문화의 조화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성당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이곳에서 찍은 기념 사진이 없다면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다.

마카오 하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몬테 요새다. 마카오 시내 전망을 바라보기에 이곳보다 만족스러운 장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덜란드가 마카오를 공격했을 당시 이곳에서 발사한 대포의 포탄이 정확히 네덜란드 화약고에 명중함으로써 마카오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몬테 요새는 선교사 보호와 마카오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1626년에 완성된 이후 마카오 총독 관저와 육군 막사, 감옥 등 역사적인 장소로 사용되다 1965년 기상청으로 쓰이면서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바뀌었다.

유럽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세나도 광장도 마카오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관광 명소다. 또 세나두 광장은 마카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많은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현지인들의 중요 장소이기도 하다. 세나도 광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유럽의 우아한 건물 모습을 담고 있어 현지인들까지도 많이 찾는다. 세나두 광장에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현대 마카오의 중심지들을 속속들이 만날 수 있다.

숙박으로는 마카오 최대 호텔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쉐라톤 호텔인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호텔이 유명하다. 스타일리시한 4001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명품 면세 쇼핑이 가능한 850개 이상의 상점과 세계적인 수준의 스파가 특징이다.

세인트 레지스 역시 마카오에서 묵을 만하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브랜드 포트폴리오 중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로 꼽힌다. 칵테일 '블러드 메리'가 탄생한 곳이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인트 레지스 마카오는 호텔 거리로 널리 알려진 코타이 스트립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400개의 객실을 갖췄으며 레스토랑과 회의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해 만족감을 더해준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상품의 속살 아워홈 '니맛' 비빔밥

할랄 인증 받은 특제 소스… 외국인들도 "맛있게 맵다"

酒精 없이 숙성된 고추장으로 맛 재현

작년 김밥 인기에 '비빔밥' '덮밥' 개발

인천공항 내 유일한 할랄 레스토랑

무슬림 비롯 하루 평균 300여명 방문



아워홈 니맛 신메뉴 3종 '야채비빔밥', '불고기 비빔밥', '치킨 빈달루 커리 덮밥'. 사진제공 아워홈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인천국제공항 유일 할랄 인증 레스토랑 '니맛'(Nimat)이 자체 개발한 할랄 인증 특제 소스를 적용한 신메뉴 3종을 새롭게 출시한다.

니맛은 아워홈이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후원사로서 할랄 급식 진행을 통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내세운 국내 외식 대기업 최초 할랄 인증 레스토랑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에서 운영, 하루 평균 고객수가 300여 명에 이르는 등 무슬림들을 비롯한 내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할랄 푸드 메뉴를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니맛'이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는 할랄 인증을 받은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야채 비빔밥'과 '불고기 비빔밥' 2종, 그리고 '치킨 빈달루 커리 덮밥'이다.

비빔밥 신메뉴에 들어간 특제 소스는 비할랄 재료인 주정(酒精) 없이도 숙성된 고추장의 깊은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기호에 따라 소스의 양 조절도 가능하며 비빔밥 메뉴와 함께 새콤한 양파 초절임과 시원한 오이 미역냉국이 함께 제공돼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워홈은 현재 할랄인증이 된 제조·물류 시스템을 통해 기술·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으나 '한식을 기반으로 한 코리안 할랄 레스토랑'이라는 니맛의 브랜드 정체성 아래 무슬림 고객이 좋아할 만한 한식 아이템을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이다.

니맛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한 '니맛 김밥'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가장 한국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이 신메뉴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비빔밥'과 '덮밥'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며 "비빔밥 양념장의 경우 무슬림 고객이 너무 맵지 않은 정도로 개발했고, 베지테리언(채식주의자) 고객을 감안해 야채와 불고기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야채 비빔밥'은 아삭한 야채의 식감을 풍부하게 살렸으며 '불고기 비빔밥'은 무슬림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한식 재료인 불고기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더했다. '치킨 빈달루 커리 덮밥'은 강황 밥에 매콤한 풍미의 치킨 빈달루 커리를 얹은 덮밥 메뉴로 구운야채와 함께 풍성한 커리 맛을 즐길 수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국식 매운맛이 인기를 끌고 있어 특제 소스로 매콤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식 대표 메뉴를 출시했다"며 "이번에 출시한 신메뉴 역시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날씨와 생활 '쿨링제'

열받은 피부의 피서법 '얼음마사지'는 안돼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남부지역 대도시에는 지난달 말 벌써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여름엔 무더위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뜨거운 햇살 아래 무방비로 야외활동을 즐기면 고온과 자외선으로 피부가 상하기 십상이다.

여름 햇볕에 15분만 노출돼도 피부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치솟는데, 이때 열을 잘 방출하지 못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피부가 수분을 빼앗겨 두께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열노화가 찾아온다.

피지 분비가 원활하고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이상적인 피부 온도는 31도로 사람의 정상체온인 36.5도보다 낮다. 피부 표면 온도는 환경에 의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실내외 온도 차가 큰 여름철에 피부의 적정 온도를 사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손주리 투쿨포스쿨 마케팅 팀장은 "열로 인해 달아오른 피부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얼음을 대거나 냉방기 가까이에서 열을 내리는 방

수분 빼앗기면 열노화에 탄력 잃어

쿨링 스프레이 등 활용 모공 조여야

법은 좋지 않다"며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스프레이 등을 활용해 늘어진 모공을 조여주고 자외선과 외부 환경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투쿨포스쿨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애슬레저룩의 간편하고 실용적인 포인트를 화장품에 그대로 적용한 신개념 애슬레저 코스메틱 라인 '온 더 무브'를 선보였다.

'온 더 무브 인스턴트 쿨링 미스트'는 알코올이 없는 저자극 제품으로 미스트 표면의 쿨링 파우더와 애플민트 성분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선사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콤팩트한 사이즈로 운동 혹은 야외활동 중 열감을 느끼는 얼굴과 보디, 발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 대나무, 무화과 성분이 함유돼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을 형성하고 촉촉한 보습력으로 안팎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다.

또한 빅 사이즈의 티슈 형태인 '온 더 무브 퀵 샤워 바디 와잎'은 운동 후, 덥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땀나고 끈적이는 부위를 가볍게 닦아주면 샤워한 듯 뽀송하게 해결해준다. 부드러운 빅 사이즈의 티슈가 1장씩 개별 포장돼 휴대에도 간편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온더무브 쿼드러플 UV 쉴드 SPF 50 + PA++++, 온더무브 인스턴트 쿨링 미스트, 온더무브 퀵 샤워 바디 와잎. 사진제공 투쿨포스쿨



“출연한 中 작품 방송 연기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JTBC ‘맨투맨’ 배우 박해진

한한령에 中 활동 어려움 겪지만
좋은 작품으로 팬들 기대에 보답
‘세월호 배지’ 소신 행동 당연한 일
앞자리 바뀌기 전에 결혼해야죠

배우 박해진(34)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빅스타다. 이미 한류 바람이 불기 전부터 현지 작품에 출연했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그런 박해진에게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불어닥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 제한령)은 기회인 동시에 시련이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사전제작된 JTBC 금토드라마 ‘맨투맨’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지만, 중국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맨투맨’에 이어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또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까지 바쁜 나날의 연속이지만, 박해진의 표정에는 여유가 느껴졌다. 또한, “이번 작품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며 배우의 열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제가 출연했던 중국 작품 방송도 연기됐지만, 사드로 인한 피해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겪은 리스크니까요. 다 함께 피해를 봐서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한 거 같아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저 빨리 원만하게 풀리길 바랄 뿐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한한령’으로 잠시 침체돼 있지만 중국 내 한류의 광범위한 인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저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라고 소문이 나면 많이들 보시고요. 한류 팬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그 한국 자체를 두루두루 챙겨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죠.”

그는 쉼 없이 작품 활동을 하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박해진은 현재 어머니, 누나 부부, 조카들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다. 취미는 운동화 모으기와 웹툰 보기, 그야말로 ‘조신한’ 남자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손에 꼽을 정도다. 현재 그에게 연애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다. “수도승 같은 삶을 사냐”라고 기자가 놀리자, 박해진은 “결혼 생각은 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결혼은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너무 늦진 않았으면 해요. 앞자리가 바뀌기 전엔 가야죠”

박해진이 이렇게 일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해진은 “연예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희 직업이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받는다 느껴질 때 기운이 나요. 제가 출연하는 작품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시고, 얘기해주시면 ‘계속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배우로서 할 수 있는 의식적인 행동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귀감이 됐던 세월호 팔찌나 배지 착용 등의 행동도 앞장서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제가 하는 의사 표현들이 제 활동에 제약이 될 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 적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팔찌를 차는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소신껏 행동하고 싶어요.”

김소연 기자 sue123@

‘윤식당’ 그 섬으로 여름휴가 떠나볼까~

촬영지 발리 인근 섬 ‘길리 트라왕안’ 관심
7월 성수기 기점으로 여행 매출 증가 기대



요즘 방송계는 그야말로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열풍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 즐기자는 풍조 속에 여행 및 힐링 예능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기세에 힘입어 대리만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 중심에 섰던 예능 중 하나가 바로 ‘윤식당’이다. 3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달여간 tvN에서 방송된 ‘윤식당’은 배우 신구·윤여정·이서진·정유미가 따뜻한 남쪽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섬 길리 트라왕안에 작은 한식당을 열고 이를 운영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메인 셰프 윤여정 휘하의 배우들이 분주하게 식당을 꾸린 모습만이 담겼지만 그 파급효과는 컸다. 전체 방송분의 평균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0%대를 꾸준히 기록, 지상파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유미가 주로 착용한 반다나, 앞치마, 귀걸이, 선글라스 등이 유행처럼 번졌다. ‘윤식당’에서 선보인 불고기 라이스의 레시피도 인기를 얻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단연코 ‘윤식당’의 배경이 된 인도네시아 롬복 섬의 길리 트라왕안이다. 그림 같은 풍광에 평화로움이 깃든 이 섬은 한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희소성이 가득한 새로운 여행지다. 실제로 ‘윤식당’에서는 식당 이야기뿐만 아니라 길리 트라왕안의 아름다운 자연이 시청자들에 좋은 반응을 받았다.

시청자들의 흥미는 곧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다. 조일상하나투어 홍보팀 과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매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면서도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번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상품의 구매가 출발일 기준 6월 달은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했고, 7월의 경우 100% 증가했다.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 큰 수요가 나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증가폭을 보인다. 7월 이후에 수요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원형진 모두투어 홍보팀장은 “‘윤식당’ 촬영지 인도네시아 롬복은 접근성이 그리 좋은 곳은 아니다. 노선 자체도 애매해서 패키지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는 지역”이라면서 “여행상품으로 개발하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홍보는 톡톡히 됐다.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며 관련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yeye@

이효리·이소라·유시민… 6월 예능 블록버스터 전쟁

tvN ‘알쓸신잡’ 유시민 작가 출연으로 화제
3년 만에 컴백 JTBC ‘효리네 민박’ 예약문의 봇물
윤도현·이소라·유희열 유럽서 버스킹 ‘비긴어게인’



JTBC ‘효리네 민박’

안방극장에서도 블록버스터 전쟁이 펼쳐진다.

6월 첫선을 보이는 ‘신상’ 예능들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콘셉트, 그동안 예능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대형 예능 스타들의 복귀까지 이어지면서 ‘역대급’ 예능 대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나영석vs나영석, ‘알쓸신잡’·‘신서유기4’ 동시 출격 = 나영석 PD의 신규 예능프로그램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하 ‘알쓸신잡’)이 2일 방영한 데 이어, tvN ‘신서유기4’가 13일 첫선을 보인다. ‘알쓸신잡’은 JTBC ‘썰전’으로 주목받은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다. ‘신서유기4’는 규현의 군 입대 전 마지막 출연 시즌일 뿐 아니라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녹화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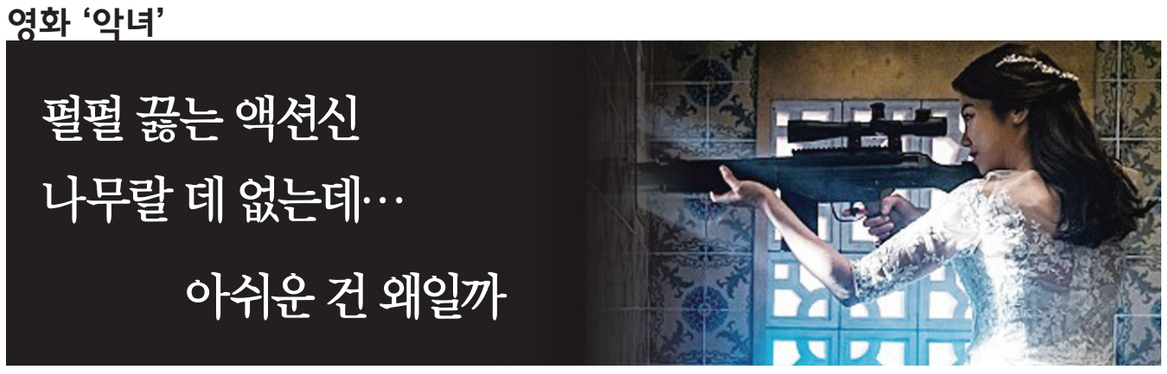
◇효리가 돌아왔다, ‘효리네민박’= ‘예능 여제’로 불리던 이효리가 SBS ‘매직아이’ 폐지 이후 3년 만에 돌아왔다. JTBC ‘효리네 민박’은 결혼 후 제주도민이 된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민박집을 열고 손님을 직접 받는다는 콘셉트다. 프로그램이 알려지자마자 예약 문의가 쏟아졌고, 10여 팀이 이효리 집에서 숙박했다. 25일 첫 방송된다.

◇윤도현·이소라, 이 캐스팅 실화입니까…‘비긴 어게인’= 대한민국 간판급 뮤지션 윤도현, 이소라, 유희열이 유럽으로 길거리 버스킹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 JTBC 새 예능 ‘비긴 어게인’도 ‘효리네 민박’과 같은 날 선보인다. 음악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윤도현, 이소라를 야외로 이끌어 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

◇절치부심 ‘냄비받침’·‘오지의 마법사’·‘싱글와이프’= 지상파에서도 반격을 준비했다. 지난 6일 첫 방송된 KBS2 새 예능프로그램 ‘냄비받침’은 이경규, 안재욱, 김희철이 참여해 책을 완성하는 과정을 그린다. 파일럿으로 기획된 MBC ‘오지의 마법사’, SBS ‘싱글와이프’도 6월 대격돌한다. 지난 5일 첫 방송부터 광활한 네팔 대자연을 선보인 ‘오지의 마법사’와 남희석-이경민 부부, 서현철-정재은 부부, 김창렬-장채희 부부, 이천희-전혜진 부부 등 연예인 부부가 대거 캐스팅된 ‘싱글와이프’가 정규 편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

영화 ‘악녀’



김옥빈의 절도있는 액션·유려한 카메라 워킹 절묘
막장드라마 연상시키는 진부한 설정 몰입에 방해

오프닝. 킬러 숙희(김옥빈)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스크린을 채우는 건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빠른 칼춤에 솟구치는 피, 그리고 추풍낙엽처럼 후두두둑 나가떨어지는 100여 명의 악당들이다. 1인칭 슈팅 게임(First-Person Shooter, FPS)을 거대 스크린에서 보는 듯한 이 오프닝은 ‘악녀’가 어떤 영화인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영화는 자신의 전공분야가 액션임을 천명한다.

어린 시절부터 조직의 킬러로 키워진 숙희. 보스이자 연인인 중상(신하균)의 복수를 하다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정보원은 그녀에게 1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중상의 아이를 임신 중인 숙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암살요원으로의 삶을 시작한다. 그런 숙희를 감사하기 위해 배정된 국정원 요원 현수(성준)는 숙희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인물의 등장으로 숙희의 삶은 다시 한 번 시험에 든다.

흠이 없는 영화는 결코 아니다. 특히 막장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플롯에서 영화는 큰 구멍을 드러낸다. ‘아버지 복수’라는 설정은 진부하고, 숙희를 둘러싼 두 남자 중상과 현수의 감정선도 얄팍하게 눌러진 탓에 동선이 뜬금없이 보이기도 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이 액션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율돼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인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전공분야’를 밀고나가는 뚝심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인공 숙희가 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벌이는 위험천만한 액션, 달리는 차 보닛 위에 앉아 한손으로 운전하는 박력 등, 날 것 그대로의 펄펄 끓는 액션이 영화 골목골목에 들어차 있다.

‘니키타’ ‘하드코어 헨리’ 등 여러 영화들의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김옥빈의 절도 있는 액션과 유려한 카메라 워킹을 통과하면서 그만의 활기를 입는다.

그러니까 ‘악녀’는 전공분야에서는 날고 기지만, 그것이 아닌 요소에서는 점수를 대폭 깎아먹는 편식이 심한 장르물이다. 한 놈만 죽도록 패는 격이랄까. 단점과 장점 중 어느 쪽을 조금 더 취하느냐에 따라 관객이 느끼는 영화적 재미는 확연히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이별 노래는 이제 그만… 지금은 인생을 얘기할 때"

인터뷰 9년 만에 정규 5집 발표한 **거미**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솔로 여가수에게 유독 가혹한 것이 음악 시장의 생태계라지만 가수 거미는 다르다. 장점이 뚜렷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포인트 역시 명확했다. 각종 음악 예능은 그의 노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수단이고, OST는 접근성을 높여 인기를 얻기에 제격이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쉬운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거미도 안다.

그런데, 왜, 거미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정규 음반을 택한 걸까. 무엇이 거미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걷게 만든 걸까. 거미는 '책임감'이라고 답했다. 15년 차 가수로서의 책임감, 팬덤 위주의 소비 시장에서 살아남은 솔로 여가수로서의 책임감. 9년 만에 정규 음반으로 돌아온 거미를 만났다.

△정규 5집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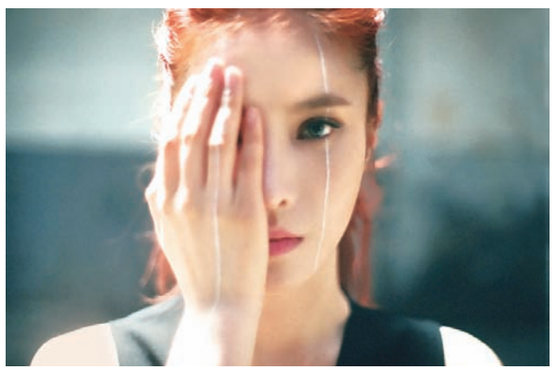
"곡이 아깝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내 음악 시장의 소비 흐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나. 정규 음반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수록곡들은 금세 묻힌다. 그게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음반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데뷔 15년 차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가수로서 내 색깔이 담긴 정규 음반을 내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다."

△타이틀곡 '아이아이요(I I YO)'는 그동안 불렀던 이별 노래와는 분위기와 내용이 다르다

"인생에 대한 노래를 하고 싶었다. 나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희망을 갖고 헤쳐 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메시지의 노래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됐다. 내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관객들의 가슴 한편에 뭔가를 남겨 주고 싶다. 이별 노래만으로는 부족하더라. 더욱 많은 대중과 더욱 진실한 공감을 하기 위해 인생 얘기를 많이 담았다."



15년차 내 색깔 담긴 앨범에 대한 의무감
삶의 위로 담아낸 타이틀곡 '아이아이요'

아티스트로서 진짜 내 얘기 들려주고 싶어
음악적으로 창작에 무게…더 노력하기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시도가 돋보인다

"히트곡 중에 발라드 장르의 노래가 많다. 더욱이 최근에는 OST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나를 발라드 가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음반 역시 발라드곡으로만 채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Mnet '슈퍼스타K 2017' 심사위원을 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울풀한 노래가 많이 없어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다. 그것이 내 새로운 시도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을 위한 길이고 또한 후배 가수들을 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솔로 여가수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당신이 찾은 돌파구는 무엇인가

"나도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슬럼프도 겪었다. 하지만 상황을 고민하고 원망하고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설 수 있는 무대, 공연을 좀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나를 더 많이 알아 주신다. 예전에는 마니아층의 팬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공연 관람객의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하고 싶은 무대만 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문제 같다. 설 수 있는 무대는 다 찾아다니려고 한다."

△이번 음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겸손하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은연중에 '내가 베테랑이지 않나'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나 보다. '음악은 끝이 없구나. 배운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의 위대함을 더욱 느꼈다. 더 많이 노력하고 경험해 보고 시도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궁금하다

"내가 음악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동안 창작보다 표현에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창작 쪽으로 더 노력해 보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의 '진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나. 마음을 더 비우고 더 많이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은호 기자 wild37@

'탑 대마초 파문' 사건 일지

경찰 조사 후 약물 과다복용…상태 호전돼 의식 회복

충격, 충격, 그리고 또 충격. 지난 일주일은 그룹 빅뱅 팬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팀의 맏형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그가 복용한 약물이 문제가 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일부터 8일까지 탑에게 벌어진 일을 되짚어본다.

#06.01 대마초 흡연 첫 보도, YG엔터테인먼트 인정

탑이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모 씨(21)와 대마초를 흡연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06.02 탑 강남경찰서 복귀

탑은 올해 2월 입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보도 당시 탑은 3박 4일의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 애초 오후 6시께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이른 오후 12시 30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복귀했다. 하만진 악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탑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다. 탑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거취에 대해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의경보호대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06.04 탑 자필 사과문 공개

탑은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드리기조차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멤버 탑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06.05 검찰 불구속 기소…탑 4기동단 전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과 한모 씨는 대마초(2회) 및 액상대마(2회) 형태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는 인정했으나 액상 대마 흡입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탑을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탑은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를 떠나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이동했고, 현장에 모인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06.06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후송

전날 밤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고 잠든 탑은 다음 날 오전 의식 불명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까지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 오후 5시께 중환자실에 입원, 집중치료를 시작했다. 경찰은 "오전 7시 30분경 조식을 위해 탑을 깨웠으나 잠시 눈을 떴다 자려고 해 계속 자게 했다"면서 "약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자는 상태다. 1~2일 정도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06.07 의료진 브리핑 "신경안정제 영향"

탑의 모친은 앞선 경찰 발표를 반박했다. 모친은 "탑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 왔으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편향적인 오보 자제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당부했다. 의료진은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탑의 상태를 설명했다. 병원 측은 "탑은 신경안정제 벤조다이아제핀을 복용했고 현재 기면 상태다.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의식이 회복된다"고 밝혔다.

#06.08 의식 회복…의경 직위해제

탑이 의식을 회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오후 1시 중환자실을 찾은 가족과 제4기동단 42중대장을 알아보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 또한 같은 날 제4기동단 측으로 법원 공소장이 전달됐으며 탑은 절차에 따라 의경 직위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탑에 대한 첫 공판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리로 진행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

'인피니트' 엘 아닌 '배우' 김명수의 재발견

MBC 수목극 '군주' 천민 이선 역
세자와 신분을 바꿔 왕위에 올라
복수와 연민·나약함 연기 긴 여운

잘생겼다. 천민 신분의 흰 무명옷을 입고서도 '잘생김'이 감춰지지 않더니 붉은 곤룡포 차림을 하니 미모가 더욱 빛을 발한다. MBC 수목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이하 군주)' 속 이선 역할을 맡은 김명수, 그룹 인피니트 엘의 이야기다.

엘은 데뷔 초부터 잘생긴 외모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지난해 6월 MBC '복면가왕'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성별 불문 패널 전원이 망원경을 쳐들고 엘의 외모를 감상했다. 김구라는 숫제 망원경을 눈에 댄 채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오래 볼수록, 가까이서 볼수록 이로운 것이 잘생긴 외모 아니던가.

하지만 '군주'에서 엘의 '잘생김'을 뚫고 시청자들의 가슴팍으로 날아드는 것은 천민 이선에 대한 연민이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이선은 세자 이선(유승호 분)과 신분을 바꾸고 왕위에 오른 인물.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편수회에 입단해 대목(허준호 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세자 이선이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분투하는 영웅적 인물이라면 천민 이선의 서사는 보다 인간적이다. 작품은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천민 이선의 감정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지만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편수회 대목,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연적이기도 한 세자 이선과의 관계에서 천민 이선은 갈등한다. 복수와 생존, 정의와 연정을 오가는 그의 감정은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해 낸다.

5월 31일 방송(13회)에서 그려진 이선과 한가은(김소현 분)의 만남은 특히 애달프다. 가은은 대목의 공작에 의해 아버지 한규호(전노민 분)를 잃었던 터. 한규호의 죽음을 촉발한 사건이 바로 이선 아버지의 죽음이다. 가은을 향한 이선의 심정은 연정과 죄책감으로 뒤얽혀 있다. 왕이 된 이선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뭐든 다해 주겠노라" 말하는 장면은 그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움츠러든 어깨, 어색하게 떨어뜨려진 고개는 비록 왕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제격이다.

사극과 어울릴까 우려했던 엘의 얇은 목소리는 오히려 이선의 나약함을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처절한 울음 또한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왕이 된 뒤 보여준 섬세한 감정 연기는 가늘고 긴 파장을 남겼다.

'연기돌'의 홍수 속에서 엘은 단박에 두각을 드러내거나 폭발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케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군주'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법을 깨우친 모습이다. 카메라를 독점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제몫을 놓치지도 않는다. 덕분에 함께 호흡하는 배우들과의 앙상블도 훌륭하다.

배우로서 조명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엘은 자신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지금의 활약이 행운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피플스토리 컴퍼니,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미래 골프 꿈나무들의 큰 잔치인 이투데이·서울특별시협회장배 골프 챔피언십이 12, 13일 양일간 경기 여주의 여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초·중·고·대학생 140명이 출전해 양보없는 샷 대결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이투데이 자료사진

유소연·김세영·장하나처럼…미래 골프 꿈나무 큰잔치 열린다

이투데이·서울시골프협회장배 골프 챔피언십

12~13일 이틀간 여주CC서 열려
남녀 초·중·고·대학생 140명 열전
올해 29회째…스타 등용문 역할
전국체육대회 예선전 겸해 치열

'초등 강자' 정영화 올 4연승 노려
국가상비군 '에이스' 윤민아도 주목
남중부 이원재·남고부 이상급 관심

한국의 골프를 짊어지고 갈 미래 골프 꿈나무들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

무대는 12, 13일 경기 여주의 여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투데이·서울특별시협회장배 골프챔피언십. 이번 대회에는 남녀 초·중·고·대학생 140명이 출전해 이틀간 양보없는 샷 대결을 펼친다.

프리미엄 경제지 이투데이(총괄대표이사 길정우)와 서울특별시골프협회(회장 장봉익)가 공동주최하는 이 대회는 30여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을 배출하며 스타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다.

그동안 이 대회는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첫 메이저대회 아나 인스피레이션 우승자 유소연(27·메디힐)을 비롯해 로레나 오초아 매치 퀸 김세영(24·미래에셋), 국내에 복귀한 장하나(25·비씨카드), 이정민(25·비씨카드), 김하늘(29·하이트진로), 김효주(22·롯데), 고진영(22·하이트진로) 김자영(26·AB&I), 이상희(25·호반건설), 김대섭(36), 이동환(30)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선수들을 배출했다.

또한 맹동섭(29), 유선영(31·JDX멀티스포츠), 장수화(28·대방건설), 정연주(25·SBI저축은행), 최운정(27·볼빅), 허윤경(27·SBI저축은행), 허인회(30) 등도 이 대회가 초석을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됐다.

유소연과 고진영은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대회를 열고 있다. 유소연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종별 골프대회를 개최했고, 고진영은 제20회 서울특별시 초중등부 학생 골프대회를 7월에 갖는다.

특이한 것은 정상급에 오른 선수들 대부분이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후 탄탄대로를 걸으며 스타덤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대회에서 무조건 우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정도로 인기 대회로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김세영과 장하나다. 두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라이벌. 2004년 경기 여주CC에서 열린 이 대회 최종일 초등부 경기에서 당시 서울 반원초등학교 6학년이던 장하나가 김세영(시흥초 6)을 2위로 밀어내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의 초미의 관심사는 여자 초등부 정영화(서울 삼육초 6)의 4연속 우승 여부. 정영화는 훤칠한 키에 장타력을 주무기로 유소연배, 서울특별시장배, 이경훈배에서 잇달아 우승하며 초등부 강자로 우뚝섰다.

에이스는 역시 국가상비군 윤민아(대청중2).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상비군에 발탁돼 눈부신 기량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서울시대회 우승 2회, 중고골프연맹 대회 우승 1회. 대한골프협회 대회에서 1승을 거두며 주니어 스타덤에 올라 있다. 집중력이 뛰어나며 퍼트가 강점이다.

남중부에서는 이원재(양동중3)가 대세다. 서울시대회 1승, 중고골프연맹대회 1승을 거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국내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골프에 입문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남고부는 이상급(서울컨벤션고2)이 '숨은 진주'다. 이미 올 시즌 서울시대회 2승을 거두며 고교부에서 정상을 지키고 있다. 뛰어난 장타력에다 롱게임이 탁월해 몰아치기로 그린을 평정하고 있다.

이투데이·서울시협회장배 골프챔피언십은 전국체육대회 예선대회를 겸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 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열전이 예상된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투데이 길정우 총괄대표이사는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골프대제전 이투데이·서울특별시협회장배 골프챔피언십에 출전하신 선수 및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원하는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 대표는 이어 "이 대회는 보다 많은 선수들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 꿈나무 육성과 유망한 선수를 발굴·지원해 선배들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골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니어골퍼들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골프협회 장봉익 회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후회없는 경기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플레이하는 선수들과도 멋진 스포츠맨십으로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특별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아마추어 골프대회도 12일 열린다. 참가 대상은 각 구협회 동호인이다.

이번 대회는 엑스페론, 미션힐스, 코코파리조트 SGM, 동부회원권거래소, 던롭스포츠코리아, 스릭슨, 플렉스파워, 옥타미녹스가 후원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女 보세요~

시흥아세코밸리, 여성골프대회 개최
내달 10일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승전
골프클럽 인터넷회원 15일부터 예선



시흥아세코밸리골프클럽(9홀·대표이사 김도훈)이 여성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아세코밸리는 플렉스파워와 함께 7월 10일 레이디스 챔피언십 결승전을 벌인다. 예선은 오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린다.

9홀을 돌면 6회, 18홀을 돌면 3회로 각각 스코어를 산정해 순위를 가려 80명을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클럽하우스에서 받고 있으며 전국 아마추어 여성골퍼 중 시흥아세코밸리골프클럽 인터넷 회원에 한한다. 예선기간 중에는 그린피 1만 원을 할인해준다. 참가 신청자는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 플렉스파워 선크림, 옥타미녹스 등 기념품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10만 원이고 행사 당일에는 중식과 만찬이 제공된다. 우승자는 500만 원 상당의 상품, 메달리스트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지고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있다.

김도훈 대표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사랑받는 아세코밸리가 지역 골프 발전과 여성골퍼들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여성골프 마니아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렉스파워 김동욱 총괄본부장은 "아세코밸리와 대회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 며 "보다 많은 여성골퍼들이 참가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손목 쓰지 않고 어프로치 샷 해야 거리 일정하게 유지

필드에서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선 스윙도 좋아야 하지만 쇼트 게임을 잘해야 스코어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쇼트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거리감도 있지만 그 전에 일정한 임팩트가 나와야 합니다. 올바른 임팩트가 쇼트게임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쇼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선 헤드 무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무게감 없이 스윙을 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일수록 토핑 볼 혹은 뒤땅이 나올 확률이 높죠. 또한 손목을 이용해서 스윙하게 되면 미스 샷이 나옵니다.

손목을 최대한 쓰지 않고,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체중을 왼쪽 발에 실어 놓고 스윙하도록 합니다. 왼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깨와 팔을 이용해 백스윙을 해주면 헤드 무게가 느껴지며 흔들림 없는 임팩트를 하게 됩니다.



어프로치 샷 할 때 클럽과 손의 모양이 소문자 'y' 모양(왼쪽)이 돼야 하는데 손목이 풀리면 뒤땅이 토핑 볼을 유발하는 스윙을 하게 된다.

체중만 실어 놓고 어깨의 움직임 없이 팔만 백스윙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헤드의 무게감을 느낄 수 없게 하는 동작임으로 항상 어깨는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드레스 때 손이 먼저 나가는 핸드 퍼스트 동작이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클럽과 손의 모양이 소문자 'y'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y'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를 백스윙과 임팩트, 그리고 폴로스루까지 버텨주고 있어야 합니다. 'y' 모양이 변형되거나 풀리면 잘못된 동작과 같이 손목이 풀리며 뒤땅이나 토핑 볼을 유발하는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손목이 어느 정도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견고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손목이 너무 자주 풀리는 골퍼는 클럽이나 샤프트 스틱을 클럽과 겹쳐 잡고 어드레스를 하도록 합니다. 샤프트 스틱이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등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손목을 쓰면 샤프트 스틱이 등에 닿게 되어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클럽을 겹쳐 잡고 연습을 하면 손목을 쓰지 않는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팩트가 먼저 준비가 돼야 일정한 거리감을 찾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 1분 골프레슨 교습가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필드 나가기 좋은 날, 선글라스 착용 '백내장' 예방을

오랜만의 단비 끝에 밝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날이 맑아지고 해가 고개를 내밀수록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드로 라운딩을 나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하지만 한없이 좋아 보이는 날씨에도 복병이 있다. 최근 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오존층이 파괴돼 더욱 기세를 키우는 자외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자외선으로 인한 안질환 중 가장 잘 알려진 질환은 백내장이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한다. 60대의 60%, 70대의 70%가 백내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이기도 하다.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하고 딱딱하게 굳어 빛이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주된 원인은 노화이며, 외상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노화를 가속화한다. 골프와 같은 야외 취미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크다. 책이나 영수증 등을 보기 어렵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 사고가 잦아진다.

백내장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빛과 사물이 퍼져 보인다.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희미하거나 눈부심 등 증상이 생긴다. 색상이 왜곡돼 보이기도 하며 근시, 복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주맹증(晝盲症)이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사물이 더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다. 말기에 이르면 동공이 흰색으로 변하고, 계속 방치하면 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최악의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로 진행을 늦추거나, 수술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시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단일공(單一孔)으로 수술하면 각막 손상을 줄여 빛 번짐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까지 잘 볼 수 있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매일 자외선 지수 예보를 눈여겨 보면 더욱 좋다. '매우 높음'인 날에는 자외선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라운드도 이 시간을 피해 선선한 새벽에 즐기는 것이 좋다. 오후 시간에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글라스, 선캡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UV400'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다. 렌즈의 색상은 선글라스 알을 통해 눈이 보이는 정도인 75~80% 정도의 농도가 적당하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2017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선정된 유시민 작가〈가운데〉와 소설가 정유정〈왼쪽〉,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가수 요조.

에누리 없는 재미, 빠져보세요

14일부터 5일간 '서울국제도서전'

도서할인전 오명 씻자…'변신' 주제

국내 161개·외국 80개 출판사 모여

"황석영·김훈 작가 사인받으러 가자"

미처 몰랐던 이색 책방들 한자리에

독서클리닉·필사서점 즐길거리 풍성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더 인간답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생각해요." - 유시민 작가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이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가수 겸 영화배우 요조

국내 최대 규모의 책 관련 축제인 '2017 서울국제도서전'이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도서전의 주제는 '변신'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최근 몇 년간 출판사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진부한 기획으로 '도서전'이 아니라 '도서할인전'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윤철호 회장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판매를 못하면서 지난해와 재작년 참여 출판사가 줄어들어 취약한 구조가 됐다"며 "할인판매를 하지 않아도 책 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새롭게 변신해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변신'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서전에는 국내 161개 출판사와 서점 23곳, 외국에서는 18개국 80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이번 '2017 서울국제도서전'은 '변신'이라는 주제에 맞춰 출판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자사의 책을 소개하는 기존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난 프로그램을 여럿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참여한 '서점의 시대'다. 20여 곳의 인기있는 독립서점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 모인다. 평소 좋아하면서도 가보지 못했던 책방, 미처 몰랐던 책방, 취향 저격의 책방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라이너노트, 신촌의 미스터리 유니온, 일산의 미스터버티고, 강원 속초의 동아서점, 경남 통영의 봄날의 책방 등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책방들과 독립출판물, 디자인, 사진, 음악, 고양이, 시, 여행, 미스터리 등 독특한 개성으로 인기몰이 중인 동네서점들을 한꺼번에 엿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관객들이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한 각종 책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중소출판사 50곳이 자사의 개성을 담은 책을 선보이는 '책의 발견전'도 주목할만한 특별기획전이다. '책의 발견전'에서는 작지만 강한 출판사들이 각기 엄선한 7종의 도서를 선보인다.

관객과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독서클리닉'에서는 글쓰기, 과학, 장르문학 등 분야별 여러 작가가 독자와 일대일 대화(1명당 15분)를 나누며 '책은 좋아하지만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면 어떤 책을 골라 읽으면 좋을까요?'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 준다. '필사서점'에서는 미리 신청한 독자의 감정이나 사연을 보고 강성은·유희경·최현우·안미옥·문보영 등의 시인이 사연에 맞춰 시를 골라준다. 독자는 행사장 내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40분 동안 시인이 골라준 시를 읽고 필사할 수 있다.

출판사별 부스에서는 출판사가 초청한 작가와의 만남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황석영, 김훈 등의 문단 거목부터 배수아, 김창규, 이정명, 김탁환 등 다양한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올해 도서전 주빈국인 터키에서는 터키 현대문학의 거장 마리오 레비의 낭독회를 준비했으며, 책 행사 외에도 커피와 음식,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도서전 초점국(스포트라이트 컨트리)인 캐나다에서 온 작가들도 도서전에서 독자와 만난다.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동화 '빨강이 최고야'의 작가 캐시 스틴슨, '7일간의 리셋'의 작가 실비아 맥니콜이 독자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

청소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학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을 방문해 다양한 도서활동을 펼치는 '책읽는 버스'가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한다.

이 밖에 짧은 분량의 소설을 영수증 재질의 종이에 인쇄해 주는 '짧은 문학 자동판매기', 북클럽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북라운지' 공간도 기대를 모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정치·생애·직업…未來 헤쳐갈 대담한 상상력

TV 렉처멘터리 '명견만리' 책으로 펴내



강연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한 KBS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 '명견만리'가 책으로 출간돼 독자와 만난다.

'명견만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슈를 다룬 '프레젠테이션 쇼'로,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인사들이 출연해 한국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 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2015년 3월 첫 방송된 '명견만리'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장진 감독,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성석제 소설가, 홍창형 아주대 교수, 장대익 서울대 교수, 앤드루 샐먼 포브스지 기자 등이 출연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해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명견만리'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미래 이슈를 다루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 명견만리에서 제기한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중국의 부상, 김영란법, 4차 산업혁명,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미래 등 이슈들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소수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던 이슈들을 대중의 장으로 끌고 나와 공론화시키면서 이른바 '시민적 담론'의 가능성도 높였다.

5일 출간된 책 '명견만리: 새로운 사회' 편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 중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익숙한 현실에서 벗어난 대담한 상상력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대해 생각의 한계를 깨는 놀라운 제안들을 던진다.

정치 파트에서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시민 직접 참여 열풍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이 바꿔놓은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다룬다. 생애 파트에서는 장수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애지도를 제안하고 우리 삶에 새롭게 등장한 '제3연령기'를 사는 대비책을 고민한다. 직업 파트에서는 정해진 일거리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전혀 다른 선택을 알아보고 660만 자영업자의 미래를 바꾸는 경제 생태계를 제안한다. 탐구 파트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자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호기심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 밖에 데이터 마인드와 컴퓨터적 사고력 등 개인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살피고 데이터 빅뱅 시대를 헤쳐나갈 혜안을 제시한다.

송웅달 KBS '명견만리' 책임프로듀서는 말한다. "미래는 땅 위의 길과 같아요.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지만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처럼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경제의 힘/ 최연구/ 중앙경제평론사/ 1만4000원

저자인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 미래 자본주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서비스,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에 주목하라며 문화라는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이해해야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는 지난해 이세돌 9단을 상대로 바둑 대결에서 승리했다. 최근엔 커제(중국) 9단을 상대로도 완승을 하며 알파고가 바둑계에서 인간보다 '신의 한 수'에 가깝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증했다.

따라서 미래에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해야 하고, 상당 부분은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다. 놀고 먹고 여유를 즐기는 문화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인간은 땀과 고뇌가 만든 산물인 문화 및 예술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은 태양/ 장경선/ 청어람주니어/ 1만1000원

"내가 지독히 아픈 역사를 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억한다는 건 응답한다는 것이고, 응답은 행동하게 한다." 저자인 장경선 작가는 책 '검은 태양'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라는 아픈 우리 역사를 말한다. 그는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파괴된 위안소와 731부대의 현장을 대면했을 때 한동안 음식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고 전한다.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아픈 역사는 자꾸 외면하고 싶어지는지도 모르겠다던 작가는 이 책에서 아픈 역사를 품는 이유에 대해 모두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억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고, 응답은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검은 태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빼앗긴 날을 이야기하고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강조한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겐 아직도 아픈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그 작은 소녀상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의미를 잊지 않도록 독려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화제의 신간



평생 아이 걱정 할 일 없는

습관육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
스스로 행복을 찾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

김지영 지음 | 264쪽 | 14,000원

습관육아를 하면 왜 육아가 쉽고 편해지는가?

1.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다양한 마음기술을 익혀 아이 스스로 조절력을 갖는다.
3.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지속적이다.

고로 엄마의 잔소리가 필요 없고, 잔소리할 일이 없어지므로 아이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진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사교육에 매달리는 엄마.
돈 안 들고 평생 가는 육아법을 찾고 있는 엄마라면 내 아이를 습관금수저로 기르는 유일한 방법 '습관육아' 지금부터 시작하자!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올해 중간배당 최대 3배 늘어난다는데…

'여름 보너스' 유망株는 어디?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6월 중간배당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같은 배당 확대 기조와 상장사 이익 증가 추세가 맞물리며,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8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5개 상장사가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지난 3년간 중간배당을 해온 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S-OIL 등 총 26개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포스코, S-OIL, 한온시스템이 올해 6월 중간배당을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중간배당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상장사의 이익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간배당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0억 원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중간배당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첫 분기배당을 시작한 삼성전자와 코웨이, 이미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 한온시스템과 함께 배당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기업을 고려하면, 올해 중간배당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2014년 6월 500원이던 중간배당금을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000원으로 올렸고, 올 1분기에는 분기배당을 7000원으로 높였다. 김용구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개선에 따라 중간배당 금액이 1만4000원으로 뛸 것"이라며 "코웨이도 주주환원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2분기는 전 분기(800원)보다 두 배 많은 1600원을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코스피200 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S-OIL △코웨이 △한온시스템 △KCC △GKL △한국단자 △대교 △한국쉘석유 등 13곳을 올해 중간배당에 나설 유력 기업으로 꼽고 있다.

한편, 중간배당 시즌에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달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한다. 대부분 기업들의 중간배당 기준일이 이달 30일이어서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오르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미정 기자 mjk@

코스피 중간배당 상위 10곳
(단위: 달러, IFRS 연결기준, 3년연속 배당)

※ 출처: 에프앤가이드

종목명	배당금(보통주, 현금, 중간) 2014년	2015년	2016년
POSCO	1,595.68	1,599.87	1,799.92
삼성전자	654.81	1,293.13	1,239.72
하나금융지주	434.84	444.00	740.01
SK텔레콤	709.36	726.29	706.09
S-Oil	168.87	1,238.41	562.91

종목명	배당금(보통주, 현금, 기말) 2014년	2015년	2016년
KCC	97.97	97.97	98.33
GKL	80.41	80.41	80.41
하나투어	67.69	77.28	77.47
대교	75.89	76.58	75.22
한국단자	15.62	20.83	26.04

주주 의결권 강화·好실적 상반기 1조3000억 전망

"삼성전자·코웨이 등 확대 유력 배당 받으려면 28일전 매수"

TBH글로벌, 홍콩 子회사 내년 해외 상장

사모펀드 조건부로 지분 투자
4월까지 성사 안되면 '풋옵션'

투자자와 공동 위원회 설립
거래소·밸류에이션 등 결정

"올 신상품 중심 온라인몰 주력
실적개선 따라 앞당겨질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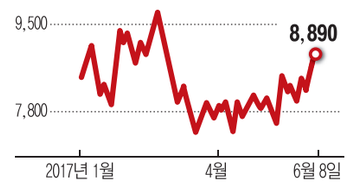
코스피 상장기업 TBH글로벌(옛 베이직하우스)이 자회사 TBH홍콩(HONG KONG LIMITED)의 상장을 위한 위원회(committee)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BH글로벌은 내년 상반기 내 홍콩 등을 비롯한 해외 증시에 자회사 TBH홍콩의 상장을 추진한다.

TBH홍콩의 상장 논의는 사모펀드인 골드만삭스와 어피니티와의 사전 계약에 따라 시작됐다. 이들 사모펀드는 TBH홍콩에 지분투자를 진행하면서, 내년 4월까지 상장을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해 매수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TBH글로벌은 2011년 한 차례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홍콩증시 하락과 실적 악화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현재 TBH글로벌은 상장과 관련한 홍콩법인 위원회를 설립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TBH홍콩 이사회를 열고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립해 상장 일정을 함께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홍콩증시에 상장할지, 중국이나 한국에 상장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실적 추정도 필요하고, 동종업체의 밸류에이션도 체크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BH글로벌 주가 추이 (단위 : 원)



관건은 TBH글로벌의 수익성 개선 작업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장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중국 온라인 확대 및 매장 체질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온라인 사이트 티몰을 통해 거래했지만, 이월 상품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온라인 시장에서 확장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올해는 신상품을 중심으로 티몰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제이디닷컴, VIP닷컴 등 현지 2, 3위 쇼핑몰과의 계약에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이 현지 톱3 쇼핑몰인 만큼,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11월 광군제 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매장 오픈과 동시에 기존 매장에 대해 중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며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한 매장의 매출 성적이 좋아 전환매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sun@

기관투자자 1조 이상 팔아 치우며 차익실현

이주의 수급동향

외국인 6704억 어치 사들여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위	KB금융	1,292
2위	SK텔레콤	552
3위	삼성화재	533
4위	삼성생명	525
5위	삼성전자우	498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6위	LG디스플레이	452
7위	SK	373
8위	현대모비스	368
9위	NAVER	351
10위	POSCO	346

기관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가 주춤했다. 6월 첫째 주(5~8일) 코스피지수는 신고가 랠리를 펼친 5월 마지막 주와 달리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총 1조78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의 대량 매도에 코스피지수는 금주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2368.62에서 2363.57까지 소폭 후퇴했다.

외국인은 670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난주 순매도에서 1주일 만에 투자 기조를 전환했다. 개인은 2287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2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나갔다.

코스피지수 하락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을 앞두고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금융주인 KB금융으로 129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KB금융은 KB손보와 KB캐피탈의 완전 자회사화를 진행키로 결정해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까지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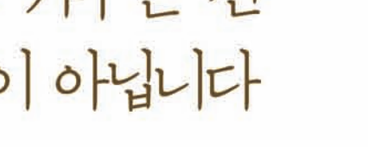
이 외에도 신정부 기대감에 힘입어 지배구조 이슈가 맞물린 종목들을 대거 사들였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이젠 코스닥 랠리… 올 들어 첫 7일 연속 상승세

코스피서 재미본 外人 유입
양대 시장 순환매 장세 분석
신정부 출범 이후 投心 강세
中 매출 기업 회복 기대감도

코스닥지수 추이



코스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점을 연일 새로 쓰고 있다. '파죽지세' 장세를 펼친 코스피의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8일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51포인트(0.53%) 상승한 669.97로 마감했다. 지난달 30일 오름세로 돌아선 코스닥은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올 들어 최장 랠리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환매 장세가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코스피에서 재미를 본 외국인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199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83억 원, 개인은 1647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 산업 규제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국정 혼란기 때부터 기를 펴지 못하던 코스닥 상장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눈에 띄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은 물론, 악화했던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와 화장품 업종의 반등 폭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살리기와 내수 회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형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IT업종이 신흥국과 비교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점도 기대 요인이다. 그간 코스피 상승장에도 확신을 하지 못하던 개미들 역시 하락 불안감을 털고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오는 추세다.

다만, 이달 열리는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들로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영국의 조기 총선 결과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결정회의 등을 주목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설계·개발 전문 회사〉

반도체 팹리스 기업, 車 시장 도전장

미래차 시장 커지자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으로 영토확장
티엘아이·픽셀플러스 등 전장용 멀티미디어칩 공급 박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전장용 멀티미디어 칩 공급을 확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는 온도, 정전기로 인한 과전압 등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품질이 요구돼 검증 기간이 길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필요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티엘아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타이밍컨트롤러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티엘아이는 LCD패널의 핵심 부품인 타이밍컨트롤러와 LCD구동칩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용 타이밍컨트롤러 설계 기술까지 확보, 향후 자동차용 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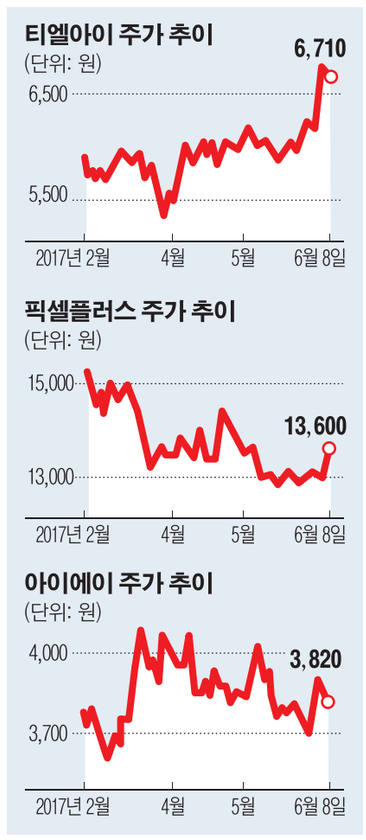
티엘아이는 기존 타이밍컨트롤러(T-con) 판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미래차 시장에 적극 대응하며, 이미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유연성이 높아 자동차 인테리어 핵심 기술로 꼽히는 플라스틱올레드(POLED) 설계 기술을 확보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MOS 이미지센서(CIS) 전문 설계 팹리스 업체인 픽셀플러스는 지난해 국내 카메라 모듈 대기업에 차량 카메라 모듈용 이미지신호처리프로세서(ISP)를 공급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픽셀플러스는 CCTV용 CMOS이미지센서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했다. 2014년 코아로직의 ISP 반도체 칩 사업부문 인력과 특허자산(IP) 일부를 인수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아이에이는 올해 국제전기차엑스포에 참가하며 자동차 전장 분야 반도체 및 모듈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이에이는 국내 팹리스 1세대로 모바일TV 수신을 위한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 분야를 주력으로 했으나 모바일 반도체 경쟁 심화로 2010년 자동차 반도체 분야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아이에이는 2016년 국내 팹리스 최초로 차량 공조 장치용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상용화했다. MCU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주변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소형 칩셋을 말한다. 2011년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 개발 과제 중 첫 국산화 제품으로 자동차 AVN 제어 칩을 개발했으며, 현대모비스에 공급하기 시작해 점차 공급 제품 및 상품과 적용 차종 수를 늘려 가고 있다.



팹리스 업계의 전장용 반도체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PC 등 기존 주력산업 시장이 빠르게 변하면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져 개발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팹리스 업계는 기존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응용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첨단 IT기능을 탑재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미래형 자동차 인기가 높아지며 반도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팹리스 기업들 사이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경우 2016년 323억 달러(약 32조 원)에서 2020년 424억 달러(약 49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팹리스 업계는 계속되는 실적 악화와 정부 지원 축소로 연구 개발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유유제약 '치매藥'으로 흑자전환

매출 13%↑… 文 정부 '치매책임제' 맞물리며 주력상품 본격화

유유제약의 치매 관련 제품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이상 늘며 주력제품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유유제약은 자사 제품인 뇌 및 말초순환 개선제(치매 관련제품) '타나민'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5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유제약은 3월 결산법인으로 매출은 최근 잠정실적 결산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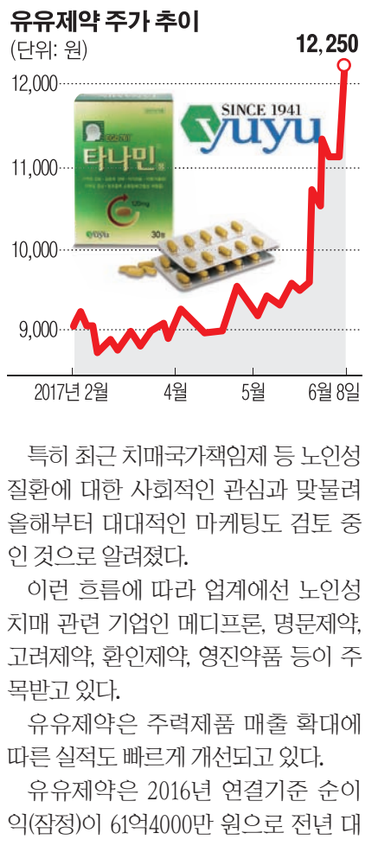
타나민정은 독일 슈바베의 특허 추출성분인 EGb761로 만든 뇌 및 말초순환 개선제로 기존 30T, 40T 두 가지 패키지로 약국에 유통됐으나 장기복용 소비자들의 대용량 패키지 출시 니즈를 수용해 180T 제품을 출시했다.

타나민정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의 치료,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두통,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우울감 등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주성분인 'EGb761'은 특허받은 27단계 추출공정을 거쳐 약리 활성성분을 20배 이상 높인 원료로, 약리활성 편차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타나민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뇌 및 말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과 신경세포의 손상을 개선시켜준다.

회사측은 성장의 주력제품을 타나민 등 노인성 치매 관련 제품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치매국가책임제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맞물려 올해부터 대대적인 마케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업계에선 노인성 치매 관련 기업인 메디프론, 명문제약, 고려제약, 환인제약, 영진약품 등이 주목받고 있다.

유유제약은 주력제품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유유제약은 2016년 연결기준 순이익(잠정)이 61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매출은 715억7900만 원으로 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9.1% 늘어난 36억9700만 원을 기록했다.

유유제약은 올해 ETC(전문의약품), OTC(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각 부문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국내외 매출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김우람 기자 hura@

〈하림그룹 지주사〉

'코스닥 노크' 제일홀딩스, 막판 홍보전

민동기 대표 IPO 간담회… "4600억 조달해 이달중 상장"
"확보자금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인류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이 되겠다는 그룹 비전 아래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식품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가치사슬을 구축하겠습니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민동기 제일홀딩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배경과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림그룹 최상위 지주사 제일홀딩스는 2011년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6개의 상장사를 포함해 총 7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법인은 31개에 달한다.

제일홀딩스는 오는 12일과 13일,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9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접수한 후 이달 안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기업공개로 공모 희망가 밴드 2만700~2만2700원 상단 기준으로 약 4600억 원을 조달하게 된다. 총 공모 주식 수는 2038만1000주로 전체 물량의 28.8%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조6000억 원 규모다. 대표 및 공동 주관사는 각각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다.

민 대표는 "이번에 확보할 자금으로 지난 팬오션 인수 당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IT 비즈니스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기업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일홀딩스는 '자연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하림그룹의 식품 가치사슬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료와 축산을 기반으로 구축해 온 단백질 식품 전문기업 하림그룹은 NS홈쇼핑 등을 통해 첨단 유통 시스템을 확보했고, 해운 업체인 팬오션을 계열사로 편입시켜 글로벌 곡물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 농장, 공장, 시장을 아우르는 이른바 '삼장(三場)' 통합 경영으로 계열화 사업 모델을 완성했다.

축산의 원료가 되는 사료 부문에서 국내 시장 18.1%를,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30.2%, 9.3%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유통에서 NS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20.9%를 달성했고, 팬오션으로 대표되는 해운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척의 벌크선사를 운영해 글로벌 시장을 거머쥐고 있다.

민 대표는 "국내에서 이룬 전무후무한 식품 산업의 계열화 성공, 시너지 구축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육류 가공 부문 외에도 전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 시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첨단 ICT 및 로봇 물류, 빅데이터 등을 식품 산업에 적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홀딩스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6조1964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21.2% 성장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07억 원, 3717억 원으로 28.4%와 113.2%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엔 매출액 1조5734억 원, 영업이익 1036억 원을 달성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스텍, 40억 투자유치 "내년 IPO"

금속 3D프린팅 기술력 인정… 한국투자파트너스·한화인베스트서 투자

코스닥 상장기업 코렌텍의 관계사인 금속 3D 프린팅 업체 인스텍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공개(IPO)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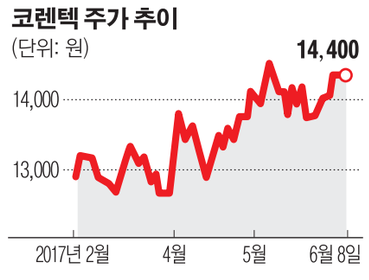
금속 3D 프린팅 업체 인스텍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한화인베스트먼트로부터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2001년 원자력연구소로에서 분리 설립된 인스텍은 국내 최초로 DMT(Direct Metal Tooling) 방식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인스텍은 2015년 3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을 지난해 총 30억 원까지 끌어올리며 금속 3D 프린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밀기계 분야 선진국인 독일과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장비를 수출하며 우주항공, 의료, 자동차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펀딩은 인스텍의 독보적 기술력과 해외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투자 금액은 3D프린팅 분야 신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기업공개에 나설 계획이다.

인스텍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자체 공장 건립과 인력 확보에 주력한 결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를 계기로 3D프린팅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다지며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스텍은 인공관절 전문 개발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코렌텍이 최대주주로 있으며, 두 회사 모두 선두훈 선병원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코렌텍은 인스텍의 지분 27.9%를 보유하고 있다.

코렌텍은 2000년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5년 충남 천안시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코렌텍의 주요 제품인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은 손상된 뼈와 연골을 대체해 인체 내에 삽입돼 체내에서 수 십 년간의 운동기능을 수행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엘케이, 갤럭시S8 '포스터치' 센서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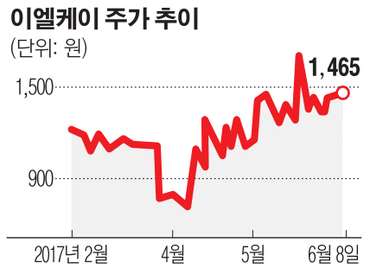
차기 스마트폰에도 확대적용 기대

이엘케이가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포스터치 센서 양산에 돌입했다.

터치스크린패널(TSP) 전문기업 이엘케이는 6월부터 갤럭시S8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포스터치(Force Touch) 센서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포스터치 센서는 정전방식의 감압식 센서로 스마트폰 전면 커버글라스 아래쪽에 장착되는 형태로 누르는 압력에 따라 기능이 실행되는 저압본딩 기술을 적용했다. 갤럭시S8 시리즈에 포스터치 센서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회사의 실적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처음 발표된 포스터치 방식은 물리적인 홈버튼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으로 앞으로 출시될 스마트폰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터치는 포스센서를 활용해 터치하는 화면의 위치나 힘의 정도에 따라 여러 기능을 구현하는 3차원(3D) 터치 기술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업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엘케이는 올해 1분기에 지난 수년간 실적의 발목을 잡아온 매출 급감에 따른 부실재고 문제와 판가인하에 의한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흑자전환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다.

성시종 기자 ssj@

메디아나, 환자감시장치 브라질 판매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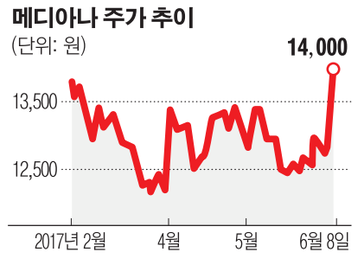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 기업 메디아나가 브라질 판매 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에 나선다.

메디아나는 환자감시장치 M30에 대해 브라질 정부 산하 의약품 감독기관인 안비사(ANVISA)로부터 판매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메디아나는 2015년 12월 브라질 진출을 위해 상파울루에서 현지 대리점들과 마케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으며, 원활한 현지 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아나 관계자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브라질은 정부가 의료기기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우호적 요건이 조성됐다"며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자사 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아나는 지난해 8월 자동심장충격기 'A15'의 브라질 판매허가를 획득했고 지난 5월 상파울루에서 열린 브라질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도 참가한 바 있다.



1993년 1인 기업 형태로 설립된 메디아나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해외 제품 수입 유통업체에서 자체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로 변모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에서 외국계 브랜드 대신 메디아나의 환자감시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외국계 회사가 지배하던 의료기기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성과를 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6월 9일, 08:00, KST)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
3,259,000원
304,050원
999,710
1,110,613
1,250,893
1,370,613
1,385,240
2,510,337
9,503
12,363
14,423
41,005
54,964
164,669
'16년2월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일
대한민국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증권
KB 자산운용
KB 인베스트먼트
KB 부동산신탁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

KB 금융그룹